PDF 자료집

주체90(2001)년

조미공동코뮈니케



6.15주간 편집부

조미공동 코뮈니케

6.15주간 편집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2000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톤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83(1994)년 4월 16일

－ 2년전 주석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셨을 때 세계는 조선반도의 정세가 평화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평화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악화되었으며 모든 측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들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세는 2년전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까지 발동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미국의 핵소동에 추종하여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결렬시키고 북남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조선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도 힘으로 남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귀국은 남조선과 함께 반세기전에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최근 귀국의 한 공무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화에도 준비되어있고 전쟁에도 준비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민들이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희생적인 노력의 대가로 재건을 이룩한 조선에서 왜 전쟁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각본밑에서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하여놓은 창조물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이롭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일관하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며 조국통일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더 없이 귀중히 여기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든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력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압살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태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어떤 침해로부터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결심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통일문제와 핵문제에 관한 회담들이 결렬되는 것은 결국 아시아의 전략적 또는 경제적 장래를 일본과 중국에 내맡기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두개의 조선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하려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선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얻은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어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귀 회담대표단 성원들중 한사람의 발언은 많은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남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발언을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열이 올라 분별없이 덤벼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한 개별적 일군의 발언이며 그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께서는 조미관계를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로 이끄는 궤도에로 돌려세우려면 전망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미사이에 합의하여 선포한 공동성명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들이 밝혀져있습니다. 조미쌍방은 이 원칙들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미사이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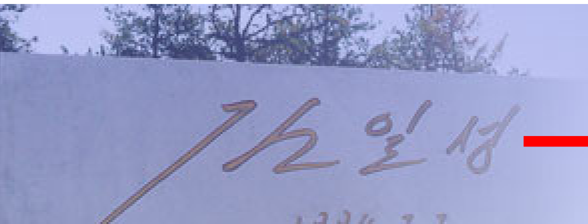
－ 지난달에 평양방송은 일본이 핵무장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귀국의 공식적인 비핵화정책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당신께서도 비핵화정책을 재 고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본의 핵무장화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의의없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는 근 반세기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시해온 미국의 정책이 핵문제로 하여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신은 귀국의 핵문제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끄는데서 중요한 요소로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공화국을 무시하고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일부 선견지명있는 인사들속에서 조미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데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들사이의 관계개선은 서로 이해하고 의사가 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그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귀국이 1992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국제사찰을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첫날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것도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노력이 무시되고 도리어 사찰공간을 통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규정된 원칙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이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후에도 우리 핵활동의 청백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표시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필요한 사찰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사찰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한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 상황이며 앞으로 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자연히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 지난달에 귀국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입니까?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관측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핵문제를 자기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거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그 누구의 부당한 요구에 추종한다면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상자체가 쌍방의 호상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느 일방이 자기의 요구를 절대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핵문제해결의 첫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보장되고 서로의 이해가 이루어지면 핵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합니다.

미국이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핵문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생각보다 헐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귀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외에 1991년에 남조선측과 핵무기의 생산, 시험, 배비 및 재처리를 금지할 데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습니다.

당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영변의 재처리시설을 유지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재처리시설≫이라고 떠들고 있는 우리의 방사화학실험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평화적인 핵동력공업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핵무기개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회담에서 핵문제의 일괄타결안이 성사되어 경수로납입이 실현되면 우리의 핵활동의 평화적 성격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미국정보기관 일군들은 귀국의 무기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귀국이 핵무기를 성과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보기관들이 신빙성도 없는 정보자료들을 조작해 가지고 우리가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핵무기를 1~2개 만들었다느니 하고 떠드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위성정찰자료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재처리능력을 배로 늘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대서특보되었습니다.

이 보도들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방에서는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억측과 과장된 보도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서방나라들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있지도 않는 ≪핵무기개발≫과 억지로 연관시키면서 큰일이나 난 것처럼 소동을 피우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의혹≫**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당신이 깊이 분석하시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은 어떤 결과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는 냉전시기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0년대의 전쟁심리를 털어버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남조선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낡은 관념때문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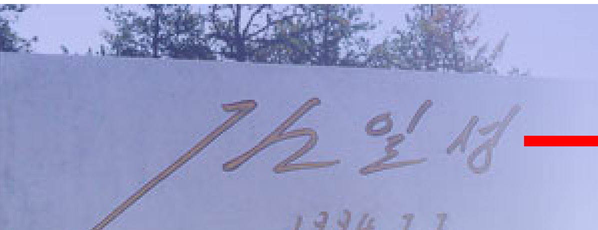
이러한 계층은 의연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 미국은 남조선에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을 전개할 의향을 표시하였습니다**.

국방성의 고위관리들은 귀국 군사전문가들도 이 미사일들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무기들의 전개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것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전쟁무기이며 그것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도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남조선에 반입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귀국은 북조선에 대한 유엔의 있을 수 있는 경제제재조치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귀국은 어떻게 대응할 작정입니까?

또한 귀국은 이러한 제재로 하여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끝내 ≪경제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온갖 적대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경제적 제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질식시킬 수도 없습니다.

– 워싱턴의 전문가들속에서 주요하게 론의되고 있는 문제는 **김일성**주석께서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교관계수립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경제관계를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시간표라도 가지고계십니까?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베푸는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선의적인 대조선정책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당신께서는 트루맨대통령이후 모든 미국대통령들의 재임기간 귀국을 영도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조선전쟁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당신의 인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클린턴행정부 시기에 와서 조미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중요한 원칙들에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결실을 위하여 일관성있게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 미국무성은 아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국가부류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반공화국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배격하며 테러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

– 남조선과의 통일대화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해 남은 1995년을 아직도 통일의 시간표로 보십니까?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북과 남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도 합의를 보았고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지난해 5월에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실현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하고 통일의 방도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당국대화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대화를 하여 온 민족의 화합과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핵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서 민간대화는 물론**, 당국대화까지 모두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얼마전에 있은 공화국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는 오는 8월 15일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대회를 가질데 대한 제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국을 포함하여 온 민족의 폭넓은 대화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성의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현안문제들과 조국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95년은 우리 7천만 겨레가 약속한 조국통일의 시간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의 목표로 내세운 1995년은 이제 한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어떻게 단합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인 것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능히 단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내놓았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이겨내고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회고해볼 때 당신께서 구상하여오신 모든 것을 수행하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구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왔습니다. 우리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참다운 인민의 사회,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였으며 자주적 인민으로서 존엄과 영예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입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이며 우리가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주체86(1997)년 6월 19일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역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지만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힘도 자주에로 나아가는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혁명투쟁의 전 역사적 기간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튼튼히 지킬 것이며 주체의 한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1.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그 자주적 본성과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완성되는 자주적인 혁명위업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적 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진다. 매개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문화와 전통이 있는 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옳게 실현할 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업으로 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 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인민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넋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인민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가 자기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인민대중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속에 전진해 나가도록 하자면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구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매개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 보장되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 이것이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관계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억제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에는 나라들 사이 민족들 사이에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국제적 위업이며 매개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하며 완성되어 나간다. 매개나라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 하여야 세계사회주의위업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선행한 노동계급의 이론에서는 그것이 옳게 해명되지 못 하였다.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인류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선행이론은 민족의 형성을 자본주의의 발생발전과 결부시켰으며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민족 자체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의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 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문제로 나섰던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서 선행이론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행이론의 사상도 당시 사회주의운동에서 절박한 의의를 가지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부식시키는 기회주의를 극

복하여야 할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벌여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그런데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못 하였다. 이 나라 당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민족부대들이 자기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하는 것을 마치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기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편견과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는 결과를 빚어내게 됐다.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완성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어느 민족에게서나 민족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인 것만큼 주체성과 민족성을 무시하면 불피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참다운 민족자주위업으로 되지 못 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계급적으로도 그 지반이 점차 약화되게 되였으며 결국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좌절과 붕괴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재난을 겪고 있으며 민족분쟁의 유혈적 참화까지 빚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민족재난의 책임을 사회주의에 넘겨씌우면서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가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자본주의 보다 못한 것처럼 훼방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날조이다. 민족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민족성원들이 적대계급들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적 재부가 민족 공동의 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수단과 재부를 틀어쥐고 있는 착취계급이 관심 하는 것은 오직 돈벌이이다. 반동적 착취계급은 치부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은 제국주의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민족적 평등도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도 이룩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부강번영은 오직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민족공동의 발전에 이용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계급적 착취와 함께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청산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옳게 살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원칙적 요구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며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민족들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며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 사이에 협조와 연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의 자주적 본성과 그 수행의 사회역사적 조건을 해명한 데 기초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주의와 민족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융성번영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이론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을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위업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신 것은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구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당과 인민이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길을 가로막는 대국주의를 견결히 배격분쇄한 것은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었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을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면서 비방하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제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벌이던 때에도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통합경제를 강요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전횡을 단호히 배

격하였다. 만일 항일혁명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신념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하고 떼부에 들어갔더라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억누르는 대국주의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 대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틈을 없앴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외세의존사상을 뿌리 빼고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되었다. 우리는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치시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본성에 맞게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지지성원하며 계급적 전우들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적 원칙을 지켰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와 반목이 격화되어 세계사회주의운동에 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우리 당은 원칙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이룩하도록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반미항전을 벌일 때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을 하면서도 아낌없는 원조와 지원을 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나라뿐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투쟁을 벌여 전 세계 진보적 역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진보적 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의 새역사를 펼쳐 놓은 우리의 투쟁성과와 경험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민족적 임무와 함께 국제적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가질 수 있으나 민족성을 복고주의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온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리고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게 하였다. 민족성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주의를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민족적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그것은 온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민족성을 중시하고 민족성에 기초한 각계각층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의 쐐기를 박으려고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떠벌이지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그 진보적 측면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민족주의 일반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너울을 쓰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부르조아민족주의이며 민족이기주의, 민족배타주의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공통성을 기본으로 내세워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합작을 주동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그들이 끝까지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꾸준히 이끌어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커다란 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더욱이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조국통일방침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민족성을 살리고 구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들을 성숙시켜 나갔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넋과 정기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본고리로 보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족적 우수성을 훌륭히 창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민들을 무장시켰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확립은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성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 부르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더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

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고 있다.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자주성의 기치 밑에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역사는 수많은 애국자들과 애국적인 투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이 자주의 신념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 온 공산주의혁명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과 같은 참다운 민족자주의 혁명위업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독창적인 길을 열어놓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결실은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특성에 맞게 우리 인민 자신이 건설한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애국애족의 사회주의라는 데 그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지니고 승리의 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적 원칙과 함께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대국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비방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한때 정통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로 자처하던 자들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를 배반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국제주의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면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혁명적 당들 진보적 인민들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2.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역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이 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애국애족의 입장을 지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며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올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교양 하는 데 힘을 넣고 있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들도 품을 들여 만들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기본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 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 차이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참답게 살며 민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사회제도 하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 있건,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을 이끌어 가는 당이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는 것은 자기의 영도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적 이념과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민족적 이익을 홀시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고 애국애족의 투쟁을 옳게 영도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바로 실현해 나갈 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당은 모든 사

고와 활동에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하며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장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애국애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긍지 높은 당이며 인민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으며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전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의 자랑찬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헌신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문제를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파국적 운명은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견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자기의 신념과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된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기가 택한 길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서 언제나 자기 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남의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앞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데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의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그 극복방도를 자체로 찾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를 돌아치면서 내흔들고 있는 그 무슨 처방이라는 것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족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묘안도 아니며 저들을 분칠하고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받아들인 데서는 사회경제적 난관이 더 심각해지고 민족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병집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배격하고 자기식의 처방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면서 혁명위업을 전진시켜 온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넋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식대로 살고 혁명을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주체적 역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이다.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데서 기본은 자체의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면 물질경제적 역량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자체의 역량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역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민족이자 인민이고 인민이자 민족이며 그 통일단결의 중심은 당과 수령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적 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로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변시킴으로써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자주적 주체의 위력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자체의 정치적 역량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갈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나라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체의 투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자기인민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면 능히 과학기술발전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설 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새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푼전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굴의 투쟁을 벌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경제적 군사적 토대를 쌓았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근본이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 나가고 있는 것은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과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자주적인 국가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혁명하는 당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적극 벌여 그들이 자기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 지난날 큰 나라들의 지배와 간섭을 많이 받아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나라들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 데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민족의 우수성은 인종적 특성과는 인연이 없으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살리고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다. 혁명하는 당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적극 내세워야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유산을 홀시하고 줴버리는 허무주의는 민족적 우수성의 개화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자면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긴다는 간판 밑에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는 복고주의 역시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갈 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복고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착취계급의 요구와 취미가 반영되어 있고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낡고 뒤떨어진 것들이 되살아나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데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가려면 민족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다 같이 배격하고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켜 낡은 것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유산을 옳게 살리는 것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 유산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우수성들을 창조해 나갈 때 민족의 우수성은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서 그것이 노는 역할이 커지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 밑에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어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양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 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을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품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이 대대손손 자기수령, 자기당에 충성과 효성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이 다시금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야 한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 본성이며 국제질서가 아무리 변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은 달라질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것 보다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 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다. 혁명하는 당

과 인민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언제나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결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다른 표현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물이다.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한다면 언제가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꿰뚫어보고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민족말살정책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반동이론들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강도적 궤변 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지고 있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가 밀접해 짐에 따라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동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대외적으로 뿐 아니라 국내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지난 시기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권리를 억누르고 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며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에게 동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과 국가는 해외에 사는 자기민족성원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민족동화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것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역사에 의하여 파산 당한 인종론, 세계주의를 비롯한 반동이론들은 오늘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되고 변형되어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 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 자기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분쇄할 수도 없고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남쪽 땅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역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민족성이 심히 유린되어 온 남조선에서는 지금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인 국제화 세계화 소동으로 하여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소동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채로 넘겨주는 대가로 저들의 권력과 안락을 유지하려는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이다. 국제화 세계화의 간판 아래 실시되는 굴욕적인 개방정책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식 일본식 서양식이 쓸어들어 남조선에서는 정치방식으로부터 말과 글, 생활풍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생활이 미국화, 일본화, 서양화되고 있으며 외세가 판을 치고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려면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온갖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반역자들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야만 매개나라들에서 민족적 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블록불가담나라들,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권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다같이 부강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념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연계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정한 국제적 관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국제적 임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미국이 벌이는 북의 ≪미사일위협≫소동의 진상공개장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지금 한반도에서는 미일반동들과 한국당국자들의 이른바 ≪북의 미사일위협≫소동으로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둔갑시켜 그것을 ≪핵≫소동 때처럼 여론화, 정치화, 군사화해 나가면서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전쟁재발의 위기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 소동이 우리 민족과 인류 앞에 가져올 파국적 사태를 우려하여 그 흑막을 내외에 발가놓는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

1. ≪제2의 핵소동≫

이른바 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벌여놓고 있는 미국의 ≪대포동미사일≫소동은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핵≫소동의 확대판이다.

그의 발단과정과 실상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① 재속에 묻혔던 불씨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북≪핵의혹≫소동은 처음부터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압살을 겨냥한 모략소동이었다.

그런 것만큼 한반도사태는 결코 ≪핵≫문제의 해결로서 결속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의혹≫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미사일문제도 거들곤 했다.

조미협상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의 미사일수출과 개발중지를 요구하며 그것을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연계시켜 왔다.

이것은 ≪핵≫문제가 해소되는 경우 반북소동의 제2탄이 미사일문제였다는 것을 시사해준 것이었다.

당시 워싱턴의 한 정책모의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핵문제에서는 국제적인 규제조항도 있고 미조간의 합의서도 있어 북을 압박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에서는 그런 고삐가 없다. 북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통제할 규제적 규범도 없고 미조간의 합의사항도 없다. 이북은 대량파괴무기불확산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북의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조미협상에서 미사일문제를 거론한 목적은 바로 앞으로 미사일문제를 가지고 반북압살공세를 취할 수 있는 고삐와 이북을 무장해제시킬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② 발단과정

미국의 ≪핵의혹≫소동으로 야기된 위기국면은 94년 10월 조미간의 기본합의서로 점차 안정국면에로 들어섰다.

기본합의서에 따라 영변원자로가동이 동결되고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되게 되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미국의 중유공급과 케도의 경수로건설작업도 개시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4자회담에서는 두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틀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사이에는 98년 말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게 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긴장완화의 기류가 확산되게 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의 매파호전계층은 98년 말부터 ≪북의 지하핵시설의혹≫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조미간의 기본합의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손가락으로 제눈을 찌르는 격이 되고 말았다.

≪문제≫의 지하시설참관으로 미국은 북의 지하터널에 막대한 식량만을 밀어넣고 ≪핵≫소동의 마지막 주패장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10여년을 반북모략소동의 꿀단지로 우려먹던 ≪핵의혹≫설이 거덜이 나게 되었다.

반면에 기본합의 당시까지만 해도 당장 붕괴될줄 알았던 이북은 세상을 들었다 놓는 인공위성발사로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울리며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의 ≪억제≫론자들을 분노케 했다. 그들은 돈주고 쌀주고 기름주고 원자로까지 주면서 얻은 것이란 수치감밖에 무엇이 있느냐면서 ≪협상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는 반북소동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되었다. 그것이 바로 재 속에 묻어두었던 불씨인 ≪미사일문제≫였다.

지하핵시설의혹문제가 바야흐로 타결국면에로 들어서기 시작하던 금년 1월부터 미국내 강경보수파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경에로 몰아가기 위한 모략적인 정보조작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북을 대화를 통해 개혁개방에로 이끌어 가려는 ≪협상파≫와 강경대응책으로 북을 무너뜨리려는 ≪억제파≫간의 알력은 정쟁으로 번져갔다.

그것은 코언미국방장관이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제출한 ≪99년판 국방보고서≫에 의해 매듭지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북조선이 미국본토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

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된 경고장이었다. (≪요미우리≫신문 99년 2월 3일)

결국 강경보수세력들의 주장이 미국의 대북정책기조로 책정되게 되었다.

엉터리위성사진 한장을 놓고 원전을 ≪핵로≫로 둔갑시켜 ≪핵의혹≫설을 만들어가지고 10여년동안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반북소동에 우려먹던 미국은 그것이 파산되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둔갑시켜 ≪미사일위협≫설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반북소동에 달라붙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위협≫설은 이처럼 실체가 아니라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제2의 핵소동≫인 것이다.

2. 계단식 확대

≪대포동미사일≫이란 말은 미국이 처음으로 화대군의 한 지명에 제멋대로 큰≪대≫자와 포≪포≫자 한자표기를 붙여서 형상적으로 ≪큰 대포≫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미사일계열에는 애당초 ≪대포동≫이란 이름이 붙은 미사일부터가 없다.

이 유령≪미사일위협≫소동은 정보조작단계로부터 정치외교적, 경제적 대응단계를 걸쳐 군사적 선제공격단계에로까지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수법은 여론화, 정치화, 군사화의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① 여론화

미국은 ≪핵의혹≫소동 때 먼저 정보를 한국에 흘려 여론화하는 방법으로 확산시켰었다.

그것은 북의 ≪핵개발≫설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직접 대치상태에 있는 한국이라고 타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에 먼저 정보를 흘려 들쑤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사격권에 있는 한국보다 북의 ≪탄도미사일개발≫설이 일본에 주는 심리적 자극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타산밑에 미국은 지난해 8월 31일 북의 발사대에서 인공위성이 날아오르자 일본방위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통고하면서 그의 ≪1단로켓이 일본해에 낙착된다≫, ≪2단로켓이 일본영토를 날아넘어 갈 것이 예견된다≫, ≪3단로켓이 일본상공에서 파열될 위험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가공된 정보들을 연발했다.

일본에서는 삽시에 일대소동이 벌어졌다.

정국의 혼잡 속에서 이성을 잃게 된 일본정부는 ≪일조국교정상화교섭 단절≫과 ≪케도의 비용분담재검토≫를 공포했다.

일본의 이런 과잉반응을 놓고 국제사회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비난할 때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일본을 쑤셔 ≪미사일위협≫소동에 시동을 건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참관이 끝난 다음인 금년 5월말부터 이북이 ≪대포동2호≫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발사설≫을 내돌리며 그것이 ≪임박했다≫, ≪중단되었다≫, ≪계속되고 있다≫, ≪완료되었다≫는 여론조작으로 긴박감을 조성하는 한편 북이 이미 ≪대포동2호 개발을 끝내고 3호개발에 착수했다≫, 그의 ≪사정거리는 6천킬로미터에서 1만 5천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발사대는 화대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국경지대에도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조작으로 이북의 ≪미사일≫문제를 눈덩이처럼 굴려가며 불구어 나갔다.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개발의혹≫설이 여론조작으로 끝없이 확대재생산된 것처럼 ≪미사일위협≫설은 또다시 여론조작에 의해 끝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② 정치화

미국은 우선 북의 ≪미사일문제≫를 ≪안보≫와 직결시켜 중대한 정치적 현안문제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이들은 북의 ≪미사일시험≫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강경보수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외신들은 ≪한때 코소보문제를 ≪유럽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하는 정치적 현안문제로 상정시켜 유고에 대한 나토의 무력간섭의 구실을 만들어 내던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일반동들과 이남당국자들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설을 이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미 일본반동들이 ≪케도의 비용분담동결≫문제를 들고 나온데 이어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중유공급중지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며 조미간의 기본합의까지 백지화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일반동들의 봉쇄작전은 지금 ≪3각공조체제≫의 둥지를 틀고 그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 판도에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미정상회담과 금년 3월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7월 한미정상회담은 미사일소동에서 미, 일, 한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의들이었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 벌어진 일본총리의 중국행각과 페리의 러시아행각은 이북의 인접국들을 ≪협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걸행각이었으며 브류셀에서 있은 15개국외무장관회의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지역의 외무장관포름에서 그 무슨 ≪대북권고성명≫이라는 것을 조작해낸 것은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을 공모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투망작전이었다.

③ 군사화

미, 일, 한의 ≪미사일≫소동은 이미 군사적 대응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7월말 미국강경보수세력의 중추인물인 미국방장관 코언의 일본, 한국 행각은 ≪군사적 대응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범죄적 행각이었다.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여기에서 모의된 ≪군사적 대응시나리오≫는 3개의 작전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단계는 ≪사전발사억제≫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 제재조치를 유지하면서 강경한 대북경고 메시지로 이북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 대북경고 메시지란 이미 미국이 언론에 흘린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일단 발사되면 휴전협정이래 가장 가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단계는 ≪무력전개≫단계이다.

이 단계는 북의 ≪미사일≫시험발사징후가 확정될 경우 먼저 추가적인 경제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의 미사일발사대를 요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공중조기경보기를 한반도에 상주시키고 서해교전당시의 대북감시체제와 전력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단계는 ≪선제타격≫단계이다.

북이 ≪미사일≫시험을 재개했을 경우 미사일로 이북의 발사대를 타격하는 동시에 ≪5027-98≫작전계획에 따르는 전쟁태세에로 즉각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세단계의 전쟁도발시나리오이다.

한국의 김대중반역정권은 이 엄청난 공모사실이 드러날가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겉으로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광고하면서 코언과의 회담에서 ≪군사적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아닌보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미7함대사령관이란 자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이 ≪군사적 대응계획≫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것은 한국당국과도 ≪긴밀한 협조≫밑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김대중정권의 발뺌을 의식하고 이들을 군사적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발목을 다시금 결박해 놓으려는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3. 가면과 실체

동전의 앞뒷면은 안팎이 같은 양면이지만 ≪대포동≫소동의 앞뒷면은 겉과 속이 다른 양면이다.

겉으로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지만 속셈은 자기들의 전력을 증강하려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논점이 있고 그 엄중성이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북의 ≪미사일≫문제를 들고 나온 진의도는 그의 ≪위협설≫을 조작해내는 방법으로 클린턴정권을 역습하여 50년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방법으로 군수산업에 숨구멍을 열어주고 군비를 단번에 세배나 끌어올려 세계적인 냉전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그것이 허물어진 오늘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투자를 요하는 미국본토미사일방위체계개발에 뛰어들어 냉전이후의 새로운 전력체제를 구축하려는데 있었다.

바로 이북 ≪미사일위협≫설의 막뒤에서 미국본토미사일방위체계 개발연구에 앞으로 5년간 6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10여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연간에는 우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정거리 9천킬로미터급 로켓까지 새로 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의 인공위성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의 ≪안보≫에 불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일대 복닥소동을 벌여놓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미사일≫발사로 둔갑시킨 ≪대포동위협≫소동 속에서 패망이래 헌법상 포기되었던 ≪교전권≫을 복귀하는 법안들인 ≪자위대법안≫과 ≪주변사태법안≫들을 의회에서 일괄통과시켰다. 그리고 정찰위성도입과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 개발에로의 참가를 내각에서 결정하였고 미국의 북침계획인 ≪5027-98≫작전계획실행에 적극가담해 나서며 나아가서 공중급유기에 의한 모험적인 ≪선제타격연습≫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미사일≫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게 된 일본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의 청와대가 미일상전의 ≪미사일≫소동에 합세하여 같이 춤추고 있는 것은 이북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미사일사정거리를 5백킬로미터까지 연장하고 반북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바로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백킬로미터까지의 미사일개발권을 따냈을 뿐 아니라 8대의 신예첩보비행기와 1백여기의 ≪퍼파이≫미사일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4. 위기와 그 출로

세계여론은 오늘의 사태를 놓고 94년의 6월위기국면을 떠올리고 있다.

문제의 엄중성은 94년의 전쟁위기가 반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 ≫에 기초하여 벌어진 위기국면이라면 오늘날의 전쟁위기는 선제공격계획으로 바뀐 ≪작전계획 5027-98≫에 기초하여 확대되기 시작한 위기국면이라는데 있다.

이미 ≪별세계전쟁계획≫의 군비경쟁으로 소련을 무너뜨린 이들은 그의 재판인 미사일방위체계의 극대형군비경쟁으로 이북을 무너뜨리고 냉전체제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군비경쟁사태를 온 지구촌에 몰아오고 있다.

오늘의 위기국면은 94년 6월의 위기국면보다 그 진폭이 훨씬 더 크다.

위기의 진원은 북의 ≪미사일위협≫에서 산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에 배비된 전략무기들과 한미일의 대북미사일모략소동에서부터 비롯되고 확산되고 있다.

위협은 이북에서 쏴올린 한발의 인공위성이나 그의 재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고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벌여놓고 있는 한, 미, 일의 제재소동과 북침을 위한 선제타격론에 있다.

위협은 또한 자국방위를 위한 주권행사인 이북의 미사일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북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본토에 배비된 수천기의 미국전략무기들과 그의 실동연습에 있으며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있다.

그러므로 위협이 제거되고 위기가 해소되려면 이 진원부터 척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사일위협≫설을 들고 나오며 제재소동에 나선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강도적 수법이 이북에는 통할 수 없다.

제재는 억제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것은 이미 ≪핵≫문제에서 시험되었다.

≪공조≫는 공생이 아니라 공멸이다. ≪공조≫의 한 이불 속에 든 한, 미, 일간에 벌써부터 아귀다툼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출로는 미사일방위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에 있으며 일본이 살아남는 길도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에 있으며 한국이 살아남는 길도 미국의 패트리어트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에로의 정책전환에 있다.

출로는 이 길밖에 없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88(1999)년 8월 17일
서 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1993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에 관한 조선외교부 성명

1994년 4월 28일

미국은 지난 40여년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게 협정의 합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하였을뿐아니라 정전감시기구마저 마비시키였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수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도 제마음대로 격화시켜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지만 정전협정이 그것을 막는데 아무런 제도적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조선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을 막는데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을 가리우는데 리용되고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협정과 기구에 더는 기대를 걸수 없다는것은 응당하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쌍방으로 규정하고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제반 사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제안에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페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경수로완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의 리행을 확언

1994년 10월 20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조미회담진행기간에는 미싸일발사를 하지 않을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99년 9월 24일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조치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대변인은 지난 17일 미합중국이 베를린조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조선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수십년동안 가해오던 적성국무역법 등 일련의 제재해제조치를 발표한것은 미국이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장벽을 해소할데 대한 자기의 의무리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비록 늦은감이 있고 전면적이지는 못하지만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조치는 조미쌍방사이에 현안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주고있다고 본다.

미국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제재완화조치를 발표한데 그치지 말고 조속히 행동으로 리행하여야 하며 우리에 대한 적대의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머지 제재조치들도 해제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실제로 관계개선에로 나온다면 우리도 신의있게 호응할것이며 쌍방의 리익에 맞게 미국의 의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게 될것이며 회담에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싸일발사를 하지 않을것이다.

김정일총비서의 특사 미국방문을 위하여 출발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8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특사일행으로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관계일군들이 같이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차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부장, 외무성 김계관부상,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왕국장이 특사일행을 전송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대통령을 만났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10일 백악관에서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과 관계일군들이, 미국측에서 국무장관 알브라이트와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버거, 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인 대조선정책조정관 셔맨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특사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미국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인사를 전달하였다 .

또한 특사는 조미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드릴것을 정중히 부탁하였다.

그는 미조쌍무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정치적의지를 밝히였다.



특사와 대통령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미공동코뮈니케 발표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의 미합중국방문끝에 12일 워싱톤에서 발표된 두 나라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이와 같이 강조되여있다.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책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는 쌍방이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미싸일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는것이 공동콤뮤니케에 또한 밝혀 져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났다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10일과 11일 미국국무장관 알브라이트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쌍방이 호상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이 교환되였다.

특사는 11일 미국국방장관 코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회담과 담화는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강석주제1부상과 미국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사이의 회담 진행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나라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미국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인 대조선정책조정관 셔맨사이의 회담이 10일과 11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가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위원장의 특사 귀국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13일 특별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특사일행인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관계일군들이 같이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차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부장, 외무성 김계관부상,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왕국장이 특사일행을 마중하였다.

이에 앞서 특사는 12일 워싱톤을 출발하였다.

력사의 대하(발췌)

. . .

폭풍전야엔 흔히 정적이 깃든다. 시꺼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소리도 없는 번개가 구름속을 파헤치며 바늘끝처럼 무시로 펀뜩인다. 대기는 압축되고 납덩이같이 무겁게 갈앉으며 하늘과 땅이 맞붙어버리는 가운데 모든것이 어둠속에 파묻혀버린다. 별안간 귀가 멍멍해질 지경으로 무거운 적막이 대지를 짓눌러버리고 미구에 들이닥칠 무시무시한 천둥소리를 기다려 모든것이 숨을 죽인다. 한순간, 목이 타들고 피가 말라드는 한순간이 지나면 드디여 푸른 섬광이 하늘을 쩍 가르며 눈부시게 번쩍여간다. 굉음은 잠시후에야 터진다.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듯 콰르릉! ㅡ 하고 뢰성벽력이 터지며 마침내 참고참아오던 폭우가 미친듯 쏟아져내린다...

극동의 조선반도와 그 수역에 폭풍전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처절한 싸움이 터질 그 시각이 박두해온 것이다.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이때 조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떨 것인가... 오늘도 전세계의 시계바늘들은 세기말의 대사변이 벌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긴장하게 맞받아갔다. 채칵채칵 채칵 채칵... 어데선가 탁상시계소리가 더 크게 울려왔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수산의사당의 불밝은 방은 엄숙한 분위기속에 잠겨 있었다. 방금 첨예한 핵대결전의 실태와 사태발전의 추이에 대한 문선규의 보고가 있었다. 핵문제에 따르는 군사정세에 대해서는 총참모장 최광이 보충하였다.

한순간의 침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형지구의가 있는 앞탁에 **김정일**동지와 마주앉아 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정치국위원들인 부주석, 총리,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차례로 둘러보시다가 천천히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오늘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핵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요. 이자 외교부 1부부장이 회의에 제기한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국제화하기 위해 미쳐날뛰던 미국이 지금은 전쟁으로까지 위협하고 있소. 우리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나갈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엄중히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거든. 더 이상 핵문제를 끌어갈수는 없을 것 같소.≫

김정일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즉시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는듯 빠른 손세를 써가며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핵문제에서 일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적들이 녕변지구의 핵시설을 기습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나머지 이제는 핵무기사용시의 지휘통신체계까지 발동시키면서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하는 이상 우리가 정의롭고 결백하며 강력하고 또 무자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되였습니다.≫

≪옳소.≫

수령님께서 정치국위원들 모두를 둘러보시자 사람들이 일시에 자리에서 움쭉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수령님! 때가 되였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합쳐 웨치려는듯 하였다. 회의분위기는 대번에 격앙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어조는 더욱 준렬해졌고 그이의 손세에서도 힘찬 박력이 두드러졌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였지 결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대국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려는 것이 아니였다는 것 따라서 미국과 그에 추종한 국제반동들이 핵압력소동과 군사적위협을 계속할 경우 그에 대응한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기어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하는 이상 우리가 무엇때문에 계속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라는 울타리안에 박혀 단련을 받고 있겠습니까.≫

≪음-≫

수령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러니 김정일동지의 생각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자는 것입니다!≫

한순간 모든것이 정지되여버린듯 하였다. 거대한 폭발의 굉음이 방금 귀전에서 터진것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적위치에서 사업하고있는 정치국위원들이였지만 세찬 충격에, 말로는 다 표현할길 없는 격동과 흥분에 온몸이 뒤흔들린듯 하였다. 특히 핵대결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문선규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그난 마치 번개불마냥 번쩍인 섬광을 본듯 하였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준비해오신 대결단, 우리 장군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오신 배심과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오던 강력한

자위적조치이다.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지탱점을, 그 명줄을 끊어버리는 이 결단, 이제 미국은 어떻게 나올것인가?...

미국은 세계의 첫 핵보유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최고의 국익을 핵무기의 독점과 그 전파방지로 보았다. 그것은 당시 핵무기의 과학적기초리론이 국제적인 공동의 지식으로 되여있었으므로 미국의 핵무기독점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였다. 실제로 그때 쏘련과 영국, 카나다에서 핵무기개발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 벌써 독일은 미국에 앞서 그 연구에서 거의 성공직전에 이르렀었다. 그러므로 될수록 빨리 국제적인 원자력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나라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을 둘러싼 쏘련과의 첨예한 리해관계의 대립속에서 1949년 9월 쏘련이 미국보다 4년 늦어 원자탄실험에 성공하고 1952년 11월엔 미국이, 이듬해인 1953년 8월에는 쏘련이 각각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고 1957년 8월 쏘련에서 첫 대륙간 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공한후 그해 12월 미국에서 역시 대륙간 탄도미싸일을 발사함으로써 랭전의 격류는 세계를 휩쓸게 되였다.

1965년에 와서야 쏘련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초안을 공포하고 당시 핵무기소유국들이였던 쏘, 미, 영 3개국이 안전보장선언을 한후 모스크바, 워싱톤, 런던에서 62개국이 동시에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드디여 1970년엔 조약이 발효되였다.

물론 핵무기는 지금도 미국의 독점물은 아니다. 그러나 쏘련의 해체와 더불어 세계의 유일초대국이 된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자기의 손에 쥐여진 족쇄로, 제 마음대로 단조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발목에 채우는 족쇄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미쳐날뛸 것이다. 횡포한 맹수처럼 포효하며 발광할 것이다. 아직 그 어느 나라도 이 사나운 맹수의 코수염조차 건드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맹수의 코수염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거머쥐고 씹어삼키려는 그 발톱과 이발을 뽑아던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시계의 초침소리가 점차 크고 성급하게 무거운 침묵을 토막치며 채각거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이 몇년맞잡이인듯... 드디여 수령님께서는 한손을 지구의 우에 얹으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겨 그것을 돌리시였다. 아니, 지구의가 아니라 지구 그자체를 돌리고 계시는듯했다.

수령님의 눈앞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 광대한 지구가, 장구한 력사를 가진 온 세계가 돌고 있다. 세계!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인가?... 이 세계에서는 모든것이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련관속에 놓여있다. 시초가 있으면 끝이 있고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다. 하여 이 세계는 부단히 운동하고 투쟁하며 변화발전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이 없는 세계를 생각할수 없듯이 투쟁이 없는 변혁도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이렇듯 지구전체를 뒤흔들어 놓을만한 대결단이 선포된 적이 언제 있었던가!...

마침내 수령님께서 지구의를 멈추시였다.

≪그렇게 결심했단 말이지. 그렇게 큰 용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열정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곧 핵전파방지를 세계전략의 하나로 삼고있는 미제의 세계지휘봉 즉 핵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됩니다. 결국 미국과 우리와의 정면충돌은 더는 피할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권을 수호할 력사적사명도 함께 걸머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판가리대결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우리 혁명은 물론 세계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말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맨 앞장에 나서서 미국과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

≪음-≫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였다. 이윽고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안광에서 광채가 번뜩이였다.

≪옛글에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소. 하늘을 놀래우고 땅을 뒤흔든다.- 다시 말하여 위인은 반드시 하늘을 놀래우고 땅을 뒤흔들어놓을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 결심이야말로 경천동지격인 대결단이요!≫

수령님께서는 다시 지구의를 천천히 빙 돌리고 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 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오?... 오래전 일을 생각했소. 항일투쟁시기 어느해인가 김주현동무가 가져온 일본 요미우리신붕 에 쓰딸린의 연설내용이 실리지 않았겠소. 2차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그때 쓰딸린은 히틀러의 로골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념두에 두고서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하며 나서되 맨 나중에 나서야 한다. 즉 저울판에 결정적인 추를, 저울을 기울어뜨리게 할수 있는 추를 던지기 위해 나설것이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최고사령관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나서되 맨 앞장에 나서서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 오래전 그 일이 문뜩 떠오르는구만.≫

모든 사람들은 사뭇 격동된 심정으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고 있었다. 핵문제에서의 그 결심이야말로 담대한 심장과 철의 의지, 비범한 지략을 겸비한 령장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막부득이한 경우의 무모한 결심은 누구나 다 할수 있다. 그러나 령장의 결심은 시대의 책임을 걸머진 것으로서 변혁하고 창조하고 력사를 전진시키는 것으로 된다. 하기에 위대한 령장을 떠난 빛나는 력사란 없는 것이다.

이윽고 지구의에서 손을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다시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였다. 세찬 흥분에 가슴을 울렁거리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두눈을 슴벅거리고 있는 부주석,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총참모장,... 도수높은 안경을 통해 최광의 눈가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것이 알렸다. 수령님께서 묻는듯한 눈길을 멈추시자 최광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한순간 성문처럼 꽉 닫긴 입을 열수가 없어 모지름쓰는듯한

표정이였다. 그는 방금 오늘과 꼭같이 흥분과 격정으로 끓어번지던 다른 또하나의 회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얼마전 조선인민군의 한 병종대회가 페막되던 날, 대회참가자들이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후 잠시 휴식하던 광실이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불빛이 휘황했었다. 수많은 차수, 대장, 상장들이 둘러서있는 가운데 수령님께서는 대회의 성과에 만족해하시며 오늘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고 전군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된 것을 볼 때마다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이어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처럼 동무들의 어깨우의 별들도 더 무거워졌다고, 그러니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어디 대답해보라, 지금 적들은 한사코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고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재개하고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정세는 대단히 긴장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데 그래 어떤가, 동무들 자신있는가?!≫

하고 물으시였다. 다음 순간 전체 지휘관들이 일시에 힘차게 대답올렸다.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수천수만의 장병들을 호령하던 엄엄한 목소리의 대합창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물론 나는 동무들이 배심든든해하고 있다는걸 알고있소.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요. 그러나...≫ 수령님의 안광에 준엄한 빛이 어리시였다. **≪적들은 간악무도하다는걸 알아야 해. 그래 적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대답해보오. 적들이 미친듯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고막이 쩡— 울렸다. 다시 광실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속에 묻혀버렸다. 침묵, 또 침묵... 모진 압박감에 심장이 터질듯 했다. 바로 그 순간,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한걸음 앞으로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며 불을 토하듯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펄펄 끓는 쇠물을 삼킨듯 했었다. 차수들과 대장군들이 거의 일시에 머리를 번쩍 들자 광실의 휘황한 불빛이 그들의 군모채양과 어깨우의 금빛견장에서 강렬한 빛을 휘뿌렸다.

≪지금 미국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계속하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어 수십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미국이 오늘까지 50여년간이나 포탄 한발 맞지 않고 살아오다보니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졌지만... 안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말 것입니다!≫

돌연 온 세계가 그이의 불같은 선언에 입을 다물어버린듯했다.

뢰성벽력이 울린 뒤끝과도 같이 귀가 메여버린 정적, 한순간에 광실은 더욱더 넓어지고 휘황해진듯 싶었다.

수령님의 만면에도 환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천천히 두손을 허리에 짚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과시 장군중의 장군이라고, 백두산의 기상을 지닌 **김정일**장군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만족해 하시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장내는 격앙되여 있었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고 계시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최광은 물기에 젖은 두눈을 번뜩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고 있었다. 지금처럼 심장이 툭툭 뛰는 소리를 듣는 듯 했었다....

마침내 최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결심이야말로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무비의 용기와 배심을 안겨주는 일대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이어 열띤 토론들이 있었다. 이제는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감히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옳소. 바로 그렇소.≫

하고 수령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그 결심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것이요. 극도로 오만해지고 있는 미국놈들에게 다시한번 조선의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최고사령관이 령장다운 대결단을 내렸단 말이요. 대결단을!...≫

수령님께서는 대형지구의를 또한번 돌리시면서 좌중의 모드 사람들을 향하여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제 김정일동지의 그 결심을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토의확정하고 곧 공화국정부성명으로 온 세상에 선포합시다!≫

빙그르 돌던 지구의가 멎었다. 수령님의 눈앞에 바로 붉은색으로 칠해진 조선이 있었다. 오늘따라 더욱 진하고 더욱 선명해보이는 조선,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예로부터 불러온 그 이름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는가?!...

. . .

이날 오후 5시 문선규는 한장의 전보를 받았다. 놀라운 소식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미국무성 전보 제38192호 친전

보낸사람:
미국무성 정치군사담당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받는사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안건: 협상제의

나는 워렌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위임으로 당신에게 우리 행정부의 제안, 다시 말하여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 협상제안을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미합중국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먼저 베이징에서 미조간 참사급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참사급접촉을 통하여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 차관보급 협상의 기틀이 마련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는 바이다.

1993년 3월 20일 워싱톤

문선규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보듯 훑어보고나서 빠른 걸음으로 탁자에 돌아왔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쪽으로 한손을 뻗쳤으나 또 굳어지고 말았다. 어느새 얼굴은 불그레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미국이 우리에게 협상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수십년간 우리를 적대시하며 그 어떤 접촉도 거부하던 미국,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신념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고 전쟁의 불구름까지 몰아오던 미국, 오만무례하던 그 미국이 드디여 정부급협상을 청탁해왔다.

문선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의 거대한 승리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싶은 심정이였다. 핵문제를 법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군사화하고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정통을 찌르면 움직이지 않을수 없다고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장군님, 드디여 조약탈퇴를 지레대로 하여 미국을 끌어내시였다. 전쟁을 울부짖던 미국이 더는 어쩌지 못하고 코가 꿰여 끌려나왔다. 미국이 굴복하였다. 전쟁이 끝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국을 굴복시키고 전쟁도 막으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내다보신대로 미국 것들이 끌려나왔습니다.!≫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미국이 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중대소식을 자신이 직접 보고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또 가슴이 뻐근해났다. 비록 엄정한 사업상 절차와 질서를 어길지언정 이것만은 꼭 직접 보고드리고 싶었다.

그는 서류가방을 열고 그속에 전보를 넣었다. 잠시후에는 벌써 복도계단을 뛰여내리고 있었다. 밖에 나서자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뗑-뗑-뗑!- 그 장중한 음향은 무엇인가. 비상한 사변을 예고하는듯 하였다.

그는 차에 오르자 크게 단숨을 내뿜으며 말했다.

≪당중앙위원회로.≫

이윽고 승용차는 만수대예술극장 앞 도로를 달려갔다. 문선규는 너무도 벅찬 흥분에 사로잡혀 라지오에서 울리는 보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운전수쪽으로 한손을 내뻗치며 소리쳤다.

≪가만, 차를 세우오.≫

≪예?≫ 운전수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여기선 안됩니다.≫

≪그럼... 그럼... 그냥 곧추 가기요. 곧추!≫

그는 흥분하여 손잡이를 꽉 틀어쥐며 라지오의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야영소건물과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감빨고 숨길을 딱 멈추었다. 가슴속에서 쿵쿵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듯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전대를 뜨시여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 가계신단 말인가?!...

운전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어데로 가잡니까?≫

≪그냥 곧추 가오. 아무데건!...≫

보도는 계속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겪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일떠섬으로써 우리는 로동당시대에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여 놓았다고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눈앞이 뿌애지기 시작하였다. 후더운 물줄기가 솟구쳐오르며 목구멍을 메이게 했다. 진정 얼마나 어려운 시련속에서, 얼마나 첨예한 정황속에서 마련된 행복의 집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시도 작전대를 뜨시지 못하시던 그 나날이 떠올라 눈굽이 찌르르해졌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흐려진 안경을 닦았다. 운전수가 또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으나 못본척했다. 아무데로 달리건 무방하다. 미국무성의 전보따위는 늦어져도 상관없다. 장군님께서는 벌써 이 모든것을 예견하시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년단야영소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후계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게 현대적인 소년단야영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야영소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승용차는 동성교 밑으로 내려 지하철 황금벌역쪽으로 향했다. 길게 대렬을 지어 만경대쪽으로 가는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소년들이 눈에 띄였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장난질을 그치고 텔레비죤과 라지오에서 울려나오는 적들의 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방송원의 목소리에 벌써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소년들이다. 그들의 크지 않은 잔등에는 크나큰 뜻을 담은 구호가 붙여진 배낭들이 지워져 있었다.

문선규는 이른봄의 찬바람과 볕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그 어린이들이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돌아보군했다. 바로 저 어린이들이 전쟁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뛰놀수 있게 하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고에 찬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청소년일군들과 이곳 야영소의 일군들은.≫ 하고 방송원은 계속하고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 있는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활짝 꽃피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하고 문선규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직도 적들은 포성을 멈추지 않았고 전쟁의 불구름은 가셔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송도원기슭을 거닐고 계신다. 봄을 가꾸며 미래를 키우며 빛나는 래일을 앞당겨오고 계신다...

전승기념관 건설장이 가까와왔다. 기중기가 커다란 화강석대돌을 물고 빙- 돌고 있다. 기발들이 펄럭이였다. 위대한 승리를 경축할 날이 멀지 않았다...

. . .

그때 역사방송원이 평양- 모스크바간 정기항로 려객기에 탈 손님들은 개찰구로 나와달라고 했다.

문선규는 오영범과 서둘러 인사말들을 나누었다. 군사대표단 일행은 다른 비행기편을 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참모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최광은 정색하여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였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그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두들겨패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군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강조한 의미깊은 말이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외교일군들의 처사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았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한 압력이 동반되는 대화에는 결코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립장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오나 항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언제나 전쟁에 준비되여있는 그들이다. 그들의 부탁이자 곧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부탁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원래 속에 칼을 품고 악수를 청하는것이 호전광들의 상투적수법이라고, 그들의 외교 역시 힘의 연장이라는 폭력적교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잠시도 공격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제 저녁의 일이다. 금수산의사당의 넓은 응접실에 정무원과 무력부, 외교부의 책임일군들이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와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준전시기간에 발휘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방력강화와 특히 당면한 조미회담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금도 문선규는 그때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 싶다. 수령님께서는 처음 문선규에게 회담준비가 다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문선규가 대답올렸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이번 회담의 총적목표를 미제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하며 압살책동을 포기한다는 정치적공약을 받아내는데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구체적인 방침을 다 주셨기 때문에 배심이 든든합니다.≫

≪그렇다! – 배심이 든든하단 말이지.≫

하고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여 환히 웃으시였다.

≪그게 중요해, 그게! 회담이라는 것도 총소리없는 전투인것처럼 처음부터 배심 든든히 공격을 들이대야 해.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총참모장에게 물으시였다.

≪총참모장동무, 어떻소. 이게 바로 김정일동지의 일관한 정치방식, 령도방식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최광이 힘있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멈추지 말며 적들이 더는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불이 번쩍나게 타격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옳소, 바로 그거요! 정치와 군사뿐아니라 외교에서도 공격을 하고 사상에서도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일동지의 정치방식, 령도방식이요. 그러니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의 공격정신을 가지고 뜬뜬해서 어떻게 하나 꼭 정치적 공약을 받아내야 해. 알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족해하실 때마다 두손을 허리에 짚으신다. 그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대화를 구걸해오고 있소. 이게 얼마나 큰 승리요. 해방후 40여년 동안이나 우리를 적대시해오던 미국이 드디여 회담장에 끌려나왔거든.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두번째로 항복도장을 누르게 됐소. 바로 40년전 판문점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누르던 것처럼 말이요!... 이것은 다 전적으로 김정일동지가 이룩한 커다란 공로요. 김정일동지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일심단결의 대오로 묶어 세웠을 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지략과 담력으로 련속공격을 들이대며 적들을 무릎꿇게 했거든. 이걸 잊지 말아야 해.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소. 김정일동지이자 조국이고 조국의 운명이요. 그러므로 동무들은 모든 부문, 모든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야겠소.≫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되새길수록 문선규는 가슴이 젖어들었다.

이윽고 그는 배웅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사다리로 올랐다. 밑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역시 손을 쳐들었다. 그것은 저밑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마음속 인사였다.

사다리가 물러갔다. 잠시후 비행기는 활주로우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맑게 개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문선규는 기창아래 저기 아득히 멀어지고 있는 지상의 모든것, 신록이 짙어가는 숲이며 하얀 댕기를 늘여놓은것 같은 강물이며 대도로와 넓고 푸른 들판을 내려다 보았다. 특히 해빛에 번쩍이는 두줄기 은빛궤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

다. 혹시 그 철길은 아니던가? 언젠가 국제원자력기구 2월 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밤렬차를 타고 달리던 그 철길, 잠 못이루던 그밤 끝없이 계속되는 무거운 생각을 이어가던 그 철길은 아니던가?... 그날 그 기슭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 있는 것인가!...

비행기는 점점 더 고도를 높였다. 안내원이 록음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준엄한 준전시기간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의 힘찬 선률이 울려나왔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문선규는 부지불식간에 가슴이 뿌듯해지고 목이 메여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정 얼마나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던가. 얼마나 엄혹한 시련이, 얼마나 참담한 핵참화의 위험이 조국땅우에 덮씌워져 있었던가!...

어느덧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끓어 오르고 있었다. 점차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타고 줄지어 내리고 있었건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벅찬 격정에 사뭇 커진 심장이 가슴속에 꽉 들어차는듯 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비행기는 구름속을 헤치고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는 창공을 날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나운 폭풍을 쳐몰아 내고 열어주신 조국의 푸른 하늘이였다.

마 감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는 법이다. 이 평이하고 단순한 말은 조미간의 첫 뉴욕공식회담때 우리측 단장인 문선규가 한 말이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간에 걸쳐 전원회담 4차, 단장회담 3차, 기타 실무접촉 등 6차 총 50시간에 걸쳐 진행된 치렬한 공방전 끝에 미국측이 끝내 정치공약을 약속하고 문건토의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때 미국측은 우리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문제토의를 계속한다는 단 두문장으로 된 문건을 내놓았었다. 그것을 본 문선규는 쓰겁게 웃으며 ≪당신네 문건 만들기 매우 힘들어 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원래 우리는 문건을 두개 준비했는데 다른 것을 내놓으면 당신네가 기절초풍할 것 같아 이것만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문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불간섭, 핵위협중지를 공약하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사실상 불가침선언과 같은 것이였다. 그 문건 토의에 또 9시간이 걸렸다. 문건에 지적된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지어 문장 표현에 이르기까지 종일 격렬하게 싸우던 끝에 미국측단장인 미국무성정치군사담당차관보 로버트 갈루치는 그만 우거지상이 되여 정말 회담이 간고하오. 왜 이렇게 문건이 자꾸 커지요? 하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문선규는 걸걸한 목소리로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고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지오. 라고 웃으며 말했다. 통속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고 해학적이면서도 준엄한 경고가 들어있는 말이였다. 그렇다!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지고 다칠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것은 우리의 핵문제 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얽어진 수많은 극적사변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의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면서 압살공세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대결단을 내리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과연 그들이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재개하고 전쟁을 몰아오고 있을 때 오래지 않아 우리앞에 무릎꿇고 불가침선언과 같은 정치공약에 도장을 찍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1993년 6월 11일, 바로 우리의 조약탈퇴가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에 뉴욕에서는 력사적인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또다시 세계가 들끓었다. ≪북조선의 대승리≫,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의 극치≫, ≪**김정일**각하의 특출한 외교지략과 령도의 결과≫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갈루치의 목을 떼야 한다, 미국외교사상 최대의 머저리라고 떠들었다. 그것이 클린톤외교에 대한 로골적인 불만과 비난이였으므로 클린톤은 갈루치가 일을 잘해서 축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성명을 발표하여 반대여론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극심한 반발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클린톤 행정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타협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였고 일본과 남조선도 전쟁의 위험에서 풀려났다고 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광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전쟁으로써만 조선을 놀래우고 굴복시킬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2월 뉴욕에서 다시 조미사이의 당면한 동시행동조치가 합의되였으나 다음달 3월에 열기로 한 제3단계 스위스 제네바 조미회담은 류산되였다. 미국이 부당한 핵사찰수용문제, 북남고위급회담특사 교환문제 등을 구실로 군사적위협을 시작했기 때문이였다.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다. ≪키티호크≫, ≪인디펜던스 ≫ 핵항공모함전단들이 밀려들었고 남조선에 신형미싸일들이 배비되기 시작하였다. 핵문제는 다시금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위협과 공갈, 분노의 선언... 성명, 기자회견, 대변인담화, 각서... 93년의 봄과 같이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였다. 미국대통령자신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때 우리에 대한 ≪대보복≫과 ≪그것은 북조선의 국가적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폭언을 했다.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고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진다. 드디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없이 8,000개의 핵연료봉을 교체하는 자위적 용단이 또 실천에 옮겨졌다. 지진과 같은 폭발, 번개가 번쩍이고 무서운 굉음이 또 지구를 흔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주시였다. 우리의 일관한 평화애호적립장,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싸울 의지와 결

심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미국은 뒤걸음쳤다. 한걸음 또 한걸음 힘겹게 물러서고 마지 못해 양보하고 사죄하였다. 1994년 7월 14일 다시 이어진 제네바회담에서 문선규가 대보복 이요 뭐요 한 클린톤의 망발을 되게 문제세웠을 때 미국측 갈루치단장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강경자세를 보여준 제스츄어에 불과하다고 애써 변명한 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렇듯 우리의 ≪핵문제≫는 전쟁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였다. 전쟁의 위험은 한시도 이 땅을 떠나본적이 없었다. 매일 두차례씩 어김없이 오고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또 갔다. 적들은 ≪핵문제≫라는 폭풍을 타고 격랑처럼 밀려들어 사회주의조선의 성벽을 치고 또 쳤지만 세찬 물보라만 흩날려쓸 뿐... 마침내 미국의 호전광들은 락심천만하여 한숨짓고 후회하였어도 때는 이미 늦었었다. 미국은 빌붙지 않을수 없었다.

갈루치: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한다. 앞으로 조선반도 뿐만아니라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안전과 평화는 바로 우리들, 미국과 조선에 달려있다.

문선규: 그건 누구의 말인가. 당신의 생각인가?

갈루치: 백악관의 말이다.

문선규: 그러면 우리도 초대국이라는건데...

갈루치: 그렇다, 당신네는 초대국이다. 미국과 같은 초대국이다!...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과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 것을 당신께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지금 조선은 세계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서 있다.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 한때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 가난과 수모, 사대와 굴종의 한많은 력사를 더듬어보면 조선의 외교관들이 처음 미국땅에 발을 들이민 것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은지 얼마후였다. 6품관이였던 박정양을 비롯한 5명의 첫 공사관원들이 백악관에 신임장을 봉정하기 위해 워싱톤에 나타났었다. 상투를 틀고 통영갓을 머리에 쓴 사람들, 후주른한 도포자락을 너펄거리며 한손엔 금시 부스러뜨릴듯 부채를 꽉 움켜쥐고서 사방을 두릿거리며 변화한 워싱톤시가를 허둥지둥 걸어간 사람들... 그 괴이한 차림의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워싱톤시민들이 거리에 밀려나왔다고 한다. 그때 위축되고 얼떠름해서 떠들썩한 조롱에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걸어간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였을가. 양키들의 조롱과 야멸찬 휘파람소리에 대한 분노였을가, 수치였을가, 아니면 비굴한 순종이거나 궁상스러운 허세, 혹은 뼈에 사무치는 렬등감이였을가, 피눈물나는 한이였을가?...

민족의 자존심은 국력에 정비례된다. 국력이 강해지면 민족의 존엄도 높아지고 국력이 피폐해지면 민족의 얼도 병들어버린다.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이 발표되였다. 동시에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담보서한을 보내여 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력사의 대하가 흘러간다. 격변하는 세기말의 크고작은 사변들, 침략과 도발, 통합과 분리, 구내전쟁, 지역분쟁, 종족싸움, 종교적 알록, 전횡, 간섭, 소요, 음모, 발명과 건설, 충돌과 재해... 실로 많은 기쁨과 슬픔, 영광과 치욕, 희망과 절망의 사연들이 력사의 대하에 떠실려간다. 어떤 것은 순간에 잊혀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것은 소용돌이치며 물멀기를 솟구치기도 한다. 때로 지진과 같은 폭발에 강물이 끓고 뒤번져지며 사품쳐흐르다가 돌연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그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준 령도자는 위대하다. 력사는 그 령도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금문자로 아로새긴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어가는 수도의 밤거리를 승용차로 달리고 계시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창에 뿌려진 비방울들이 줄지어 흘렀다. 승용차의 유리닦개가 간단없이 오고가며 비물을 훔쳐내군했으나 물줄기는 쉼없이 흐르고 또 흘렀다. 뿌잇해진 거리의 장식등들, 오가는 차들의 앞머리가 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가을철답게 화려한 황금색으로 단장했던 은행나무들이 소리없이 하나둘 잎사귀를 떨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슥토록 단잠에 든 거리의 창문들을 내다보고 계시였다. 잠 못이루시는 밤마다 수도의 거리를 돌고돌며 사색을 이어가는데 습관되신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이밤은 사정이 다르다.

방금전까지 조미회담을 끝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였다. 대표단 단장인 문선규와 참사 김세환, 순회대사 최우정, 참사 손무헌 등... 심각한 핵대결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축하해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어려운 싸움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기쁨도 컸고 울음도 많았었다. 치하와 고무, 축배, 목메인 감사, 맹세… 화기에 넘친 접견이 끝나고 그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였다. 갑자기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순간 그이께서는 습관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송수화기를 잡으시였다. 례사로운 그 전화종소리로 여기신 것이였다. 그러나… 별안간 뜨거운 것이 솟구쳐오름을 느끼시였다. 가슴속에 쓸어드는 뜨거운 물결, 목메이는 격정, 눈굽이 저릿저릿해지는 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천하를 휘여잡는 그이이시건만 눈물도 많으시였다. 마음속에 안고계신 사랑과 충정이 하도 커서 아픔도 많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곧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시였다. 기쁜일, 슬픈일이 생겨도 혼자서만 알고 계실수 없어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려 때없이 차를 달리시던 그이이시였다.

비는 여전히 줄금줄금 내리고 있었다. 승용차의 시창을 하염없이 적시는 비줄기, 유리닦개가 미처 훔칠새 없이 또 줄지어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였다. 장식등의 불빛마저 흐릿해졌다. 그때 유난히 붉게 명멸하는 글발들이 눈에 뜨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던 축탑에 새겨진 글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를 잃은 온 나라 눈물의 바다우에 세워주신 신념의 구호, 비물에 젖은 붉은 글발들이 더욱 더 진하고 선명하게 두드러지며 가까와졌다. 그이께서는 그 글발 한자한자를 뜨거운 마음속에 새겨가며 이윽토록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드디여 그곳에 이르시였다. 그곳, 숙연한 정적이 깃든 방,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과 한생의 고귀한 업적을 숭엄히 새겨가는 회억의 방, 사색의 방, 불빛마저 수령님께서 한생 추켜들고 오신 붉은기의 색조로 물들어있다.

고요하다. 무한과 영원…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사색에 잠겨 계신다. 눈덮인 만주광야의 말굽소리를 들으시는듯, 남해의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듯… 우주에 비껴가는 사색의 빛발, 창창한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시듯…

김정일동지께서는 발걸음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또 한걸음 옮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색을 깨칠세라 숨소리마저 저어하신다.

정중한 고요, 엄숙한 정적… 문득 오래전 일이, 지금처럼 발자국소리를 낼세라 수령님의 침상을 밤새워 지키시던 그때의 일이 떠오르신다. 잊을수 없는 1965년 4월,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머나먼 항로끝에 이어진 무더위속의 연도행사, 무개차를 타고 그 나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숙소로 가시는 과정에 수령님의 병세는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곧 비상의료대책을 세우고 장밤 수령님의 침상을 지키시였다. 매 시간 체온을 재고 방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숨결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발자국소리를 낼세라 극히 조심하면서 침상곁의 작은 의자에 앉아 온밤 꼬바기 밝히며 마음을 졸이시였다. 하루밤새 자신의 입술이 타들고 눈에 뜨이게 축가신줄도 모르시였다. 다음날 아침 그이의 축가신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짐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몸이 불편하셨지만 열이 내리니 몸이 거뜬해졌다고 하시며 우정 밝은 안색으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였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엄정한 치료대책을 세우는 한편 계속 밤잠을 미루시였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우에서 맞으시는 탄생일이 왔다.

뜻깊은 4월 15일의 그 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에서 가져오신 술로 어버이수령님께 축배잔을 드리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연회상을 둘러보시며 조국에서 생일을 맞을 때보다 더 잘 차렸다고 이국땅이지만 조국의 산해진미가 다 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어 보기에도 시원하고 구미가 도는 평양랭면이 상에 오르자 수령님께서는 열대나라에 와서 평양랭면이 어찌된 일인가고, 누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모든 수행원들의 눈길이 **김정일**동지께 향해진 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더 묻지 않으시고 외국에 와서 지성어린 생일상을 받고보니 지난날 이역땅에서 생일을 모르고 살아온 쓰라림이 가셔지는 것 같다고 평양랭면이 자신의 병세까지 말끔히 가셔주고있다고 하시며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고 거듭 뜨겁게 말씀하시였었다….

흘러간 먼 시절의 그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시다. 또 그뒤를 이어 밀려드는 가지가지의 추억에 눈시울이 뜨거우시다.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그이이시기에 추억도 많고 아픔도 많으시다. 준전시때의 그 준엄한 나날에도 겹쌓인 피로에 눈시울이 무거워지면 창문을 열고 어머님께서 계시는 대성산 주작봉마루를 바라보시던 그이이시였다. 어머님께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라고 하신 간곡한 당부를 생각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가다듬던 그이이시였다. 오직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쉼없이 일하며 분투하여 오신 그이, 지금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드릴 크나큰 기쁨을 안고 오시였다. 미국대통령이 그이께 담보서한을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생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받으셔야 할 항복서한이 아니였던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건한 자세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신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시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듯, 이 깊은 밤에 웬일이시오? 하고 조용히 물으시는듯… 크나큰 아픔에 또 목이 꽉 메이신다. 지금껏 남모르게 애써 참아오신 그 모진 아픔과 슬픔이 밀물처럼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신다. 기쁨을 안고오셨지만 심중의 아픔은 가셔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이의 표정은 숭엄하시다. 새 세기의 위업을 떠메신 그이의 눈빛은 거룩하시다.

≪수령님,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요!≫

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멎고 하늘이 개였었다. 엄숙한 고요, 삼라만상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밤하늘의 수억만 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반북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89(2000)년 11월 2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상원의원 27명은 **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북이 중대한 변화를 보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테러지원국명단에서 *****

한편 미국 언론들은 ** 올브라이트의 방북 후 대북정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그 자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 화해분위기와 북미관계개선을 달가와 하지 않는 자들의 얼토당토한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서도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화해와 통일, 관계개선에로 좋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남북의 화해분위기와 조명록특사의 미국방문과 화해와 관계개선을 확약한 북미공동커뮤니케 발표, 그리고 올브라이트의 방북 과정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남북의 화해와 북미관계개선분위기가 ** 있고 권위있는 유엔회의의 **

남북간, 북미간의 이런 변화를 외면하고 대북정책의 ** 것 등을 촉구해 나선것은 미보수세력들의 또 하나의 대북적대정책의 노골적인 표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북을 태러지원국이요 뭐요 하면서 이북을 걸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북에 대해 테러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북은 자주, 친선, 평화를 **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대결 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테러한 적도 없습니다. 이북에 대해 테러요 뭐요 하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나라들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날조해낸 구실입니다. 사실 테러로 말하면 이북에 사죄해야할 미국입니다. 미국은 각국에 국가정보국 요원들을 박아놓고 거기서 **있는 개별적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미국이 지난 시기 베레나다와 파나마 무력침공에 이어 최근에 이라크와 유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한 것 등은 사상 최고의 독재며 태러행위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 이북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며 북미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파렴치한 ** 미공화당 보수세력들과 보수언론의 이같은 반북움직임은 화해와 관계개선으로 나가는 북미관계를 다시 대결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공화당 보수세력이 아무리 발광해도 역사의 흐름을 절대로 멈춰 세울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습니다. 미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하여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월 9~10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부시 차기정권이 북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보도된 데 따르면 부시 차기정권이 46억 달러를 들여 북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신문은 부시 차기정권이 경수로 건설조약을 바꾸는 방안은 북미합의문이 사실상 종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외신들이 이런 보도들을 날리는 것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만약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서를 깨는 방향으로 나가면요, 우리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죠. 북미기본합의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구요, 또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상품거래명세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핵무기를 근원적으로 **하고 ** 보장을 위한 북미사이에 정치 ** 이정표입니다. 이북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수십년동안 건설한 **핵** 공업을 중단시켰어요. 이것은 이북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업을 희생시키는 비장한 결단을 내린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마땅히 이에 상응하게 경수로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매년 50만톤 씩 주기로 한 원료를 공급해야합니다.

사회자 : 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어느 조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문 자체를 깨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원 : 그러게 말이에요. 미국 측은 북미기본합의문에서 2003년까지 총 200만 키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에 제공하며 북의 흑연건설로와 관련시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매해 50만톤의 원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조약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경수로건설착공식은 계속 미뤄오다가 97년 8월 13일에야 착공하고, 그 후 본체공사는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수로 건설전망이 얼마나 막연했으면 러시아의 **은 **언제 **겠는가 하는 것을 **으며 세계의 진보민중은 *** 민족 ** 경수로 공사는 **되리라는 건 짐작 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부시 차기정권이 석탄화력발전소로 바꾸는 방안이니 뭐니 하면서 경수로 조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회자 : 우리민중과 국제사회는요, 북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려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책동을 보고 미국이 **라며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냉전을 **시키고 북미기본합의문 이행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수**의 표리부동한 태도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북미기본합의문은 ***고 있어요. 이렇게 된거는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처음부터 북미기본합의문의 채택을 달가와 하지 않았어요. 공공연히 북미기본합의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클린턴 정권이 너무 양보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비질을 하고 방해책동을 벌려왔다는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의 이런 **가 부시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 표면화되고 있는데 세간에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부시 차기정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북미기본합의문이 깨어져도 결코 겁나지 않다. 이것이 이북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이북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네 아시다시피 이북은 자기 **도 ** 나갑니다. 이북은 자기의 존엄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이북의 입장은 명백한 거예요. 이북은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을 **으로 여겨진다면 제 할 바대로 한다는 거죠. 이북은 북미기본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어 경수로 건설이 계획된 날짜에 끝내기를 바라지만 설사 그것이 깨어진다고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달갑지 않으면 그만 두라는 거죠. 이 얼마나 배짱있는 태도입니까?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을 깨면 이북도 그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회자 : 네, 미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미기본합의문을 깬다면요 돌이킬 수 없는 악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죠. 북미기본합의문이 완전히 백지화되는가 아니면 빛을 보게 되는가 하는 건 전적으로 부시 차기정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 **분위기에 걸맞게 한반도에서의 대결국면을 해소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북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 따른 경수로 건설을 계획된 날짜에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파기하려 한다면 미국은 내외여론의 규탄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미국 ***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그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사회자 : 전 민중은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겠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일구는데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 네 근본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보면은요 부시 차기정권은 심지어 민주당정권이 이룩해 놓은 것까지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미국도 좋을게 없어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은요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길로 나갈게 아니라 개선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요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대북정책을 통해 본 부시정권의 호전적 정책

구국의 소리, 주체90년 5월 31일, 6월 2일

지금 북미관계를 보면은요 미국의 클린턴집권말기에 북미사이에 형성되었던 긍정적인 조짐들은 다 사라지고 팽팽한 대결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이처럼 악화되게 된 건 전적으로 바로 새로 집권한 부시행정부의 이북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대북정책을 통해 본 부시정권의 호전적 정책 오일씨, 이철씨 두 분 얘기들으시죠.

이 철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이 철 : 아시다시피 부시 미행정부의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100여일간 부시행정부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은요, 특히 대북정책에서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가 뚜렷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으면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 일 :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부시행정부출범 이전의 조미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내외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클린턴정권말기에 조미관계에선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었죠. 특히 새 천년대에 들어선 지난해에는 조미간엔 상호 고위특사교환방문이 이뤄지고요, 적대관계의 해소를 선포한 공동커뮤니케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 일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올해에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선행자의 조미관계개선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지도 않은 이른바 북의 위협에 광분하면서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다름아닌 미국이 이북을 위협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고요, 세계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도리어 이북의 위협을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거꾸로 된 강도적 논리인데요. 이렇게 힘의 정책에 기반한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부시행정부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을 실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철 : 부시행정부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은요, 부시행정부팀의 대북강경언동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먼저 부시망언을 ****봐요. 그는 집권초기 지난 2월 27일 미국의 상하양원합동에서 한 연설에서 이북을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면서 반북대결자세를 일층 강화하겠다는 걸 시사했어요.

그는 이북이 그 무슨 투명성이 없다면서 조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가하면 이북과 미사일협상속도를 늦추고 북조선의 재래식무기감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역설을 했구요. 심지어 이북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지꺼렸습니다. 부시행정부팀의 매파들 또한 대북강경폭언을 연발하고 있는데요. 미국무장관 파월을 위시한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하나같이 북에 대한 이른바 검정을 운운하면서 북의 붕괴론까지 떠들어댔어요. 특히 파월국무장관은 이북의 재래식군사력감축문제를 주장했구요. 미국회상원외교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미-조기본합의문 폐기 등 더욱 강경한 대북노선을 취할 것을 부시에게 요구했어요. 또한 태평양지역미군총사령관은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했구요.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은 북조선근처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이 철 : 이북근처에 미사일배비에 관한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실제로 이북의 미사일에 배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동해에 요격미사일이 장착된 이지스함 두척을 새로 배치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 일 : 네, 맞아요. 이 사실이 영국의 군사전문잡지의 구체화되지 않은 탄도미사일폐기하라 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잡지는 미국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새 미사일 방어계획은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쯤에야 실전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 해결책으로 우리 나라 동해에 이지스함대





을 배비하는 방안이 미해군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그 첫째 방안으로 앞으로 1년이나 2년 반안에 이북에서 20내지 5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이북을 침공하기 위한 부시행정부의 호전적 폭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실감케하는 매우 무모한 전력증강책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철 :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남의 호전적인 군부당국과 공모해서 이북을 겨냥한 최신형 무력증강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죠.

오 일 :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은 9천 8백만달러를 들여 미국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사용될 최신형 미사일발사대 3기를 비롯해 5억달러에 달하는 여러 가지 관련 부품을 미국에 정식 주문했구요, 미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미호전광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 발사대를 새로 건조할 구축함에 설치해서 해상과 공중을 장악하고 어리석게도 미사일로 이북을 공격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의 군당국자들은 올해의 군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많은 15조 4천억원으로 정한데 이어 차세대 공격용 헬기와 전투기 그리고 이지스구축함 등 초현대적 무기구입을 새롭게 결정하고요, 앞으로 5년간 35조원을 투자할 중기국방계획까지 세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철 : 미국은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문제를 걸고들면서도 군당국의 미사일생산과 구입을 승인하고 각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침략적이고 호전적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부시행정부는 이북의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불러다 미국회에 내세워 이북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증언을 하게 했구요. 이북의 이른바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가능성까지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호전적인 매파세력들이 이북에 대한 검증과 상용무기감축 등 전제조건들을 들고 나오면서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는 건 조미관계의 개선과정을 파괴하고 힘의 대결을 몰아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철 : 부시행정부의 침략적, 호전적 정체는 말이죠.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이른바 연합전시증원연습을 위시해 극히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서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예, 그래요. 한미호전세력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반도위기상황시 미본토를 포함한 미군의 효율적인 전력지원을 목적으로 실전분위기 속에서 연합전시증원연습을 벌였습니다. 이건 집권초기부터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한 부시행정부가 그걸 실천행동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이란 말그대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모험적인 전쟁도발정책으로써 그건 이북과의 대화포기 및 힘의 대결전환이라고 하겠는데요. 조미관계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걸 공공연히 선포한 것으로 됩니다.

미국호전광들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주한미군2사단 병력을 내몰아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일대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구요. 이와 때를 같이해 한국의 육군수도방위사령부도 지난 7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야외기동훈련을 벌였어요. 이 훈련엔 현역과 예비군 무력이 참가했는데요. 대규모 차량기동연습도 동시에 실시됐어요. 한미호전광들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매우 심상치 않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철 :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와 그에 공조하는 한국의 군당국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은 목적과 내용, 시기와 규모로 볼 때 극히 위험천만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기동훈련이나 전시증원연습은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벌이는 건데요. 전투기들의 비행연습이 벌여지고 대규모차량들이 이동하며 현역과 예비역이 군사연습에 동원되는 건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부시 새 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때에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인 것으로 해서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철 : 현 미국정부와 한국 군당국이 벌이고 있는 이 무분별한 반북전쟁압살책동으로 화해와 완화의 길을 걷던 남북관계가 역전되고요. 또 조미교전관계가 폭발적 계선으로 치닫는 파국적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부시행정부와 이땅의 사대매국적인 호전광들은 머리를 식히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습니다. 이북은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대북강경압살책동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대응조치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고 그 폭과 심도에서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올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을 저지른 불운아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북침전쟁의 불장난에 매달리는 미국과 이땅의 호전광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건 명백한 것입니다.

이 철 :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대북강경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신의가 없는 나라이다

민주조선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대통령 부쉬가 얼마전에 있은 미일수뇌자회담에서 우리와의 ≪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북조선이 미국뿐아니라 주변나라들에도 신뢰할수 있는 나라라는것을 보여 주지 않는 한 경솔하게 합의보지 않겠다≫느니 뭐니하며 마치도 저들이 조미관계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나 한것처럼 거만하게 놀아 댔다.

14일부 ≪민주조선≫은 이것은 손아래동맹자앞에서 상전으로서의 체면을 세워 보려는 하나의 어리광대극으로서 사실에 대한 완전한 날조이며 외곡이라고 단죄하였다.

호상간의 신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소리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앞에서는 약속을 해놓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그것을 헌신짝 줴버리듯 하면서 전혀 지키지 않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정형을 그 실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문제도 그 약속기한인 2003년은커녕 2010년이 지나도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감히 우리를 보고 그 무슨 ≪신의≫에 대해 떠벌이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부쉬의 이번 거동은 저들의 ≪대화재개제안≫의 진짜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놓은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대화재개제안≫을 통하여 저들이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막뒤에서 제 볼장을 보려고 꾀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더없이 귀중히 여긴다.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면서 거만하게 놀고 있는데 대한 대가를 받아 내고야 말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와의 대화를 바란다면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우에서 대화에 림해야 할것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16일부 ≪로동신문≫은 얼마전 미국에서 진행된 미일수뇌자회담에서 미국대통령 부쉬가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감정을 건드리는 소리를 늘어 놓은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조미관계를 개선한다는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만든다는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전쟁책동을 그만 두고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조미관계개선을 통하여 그 어떤 ≪합의≫를 바라고 있는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들은 조미대화재개와 관계개선을 우리에게 주는 ≪혜택≫으로 생각하면서 그 무슨 ≪경솔한 합의≫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권리를 훼손시키는 관계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더우기 머리를 숙이고 무엇을 ≪합의≫해 달라고 절대로 간청하지 않을것이다.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하고 신의에는 신의로 대답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옳바른 대화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신의 있게 대응할것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가도 조미관계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옳바른 선택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의 립장수준에 도달되야 대화재개 가능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 부쉬행정부의 관리들이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대화재개에 큰 관심이나 있는듯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미국이 대화제의에 대한 공식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가하면 미국무성 대변인도 우리와 전제조건 없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렇듯 부쉬행정부내에서 최근 표시되는 대화재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실제적인 대조선정책과 대화의지에 대해 론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지금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쌍방이 마주앉기도 전에 제시한 일방적인 협상의제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상용무력까지 걸고 든 미국의 협상의제들은 극히 일방적이며 그 적대적성격으로 하여 받아 들일수 없는것들이다.

이러한 의제들이 철회되기전에는 대화재개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현행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을 버리고 최소한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립장수준에 도달될 때에 가서야 조미대화의 재개가 가능 해 지게 될것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미국의 선임행정부시기 조미쌍방은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과 뉴욕조미공동콤뮤니케 등을 통하여 오랜 불신과 대결, 오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관계를 정상화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여야 할 정치도덕적 및 법적의무를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는 자체의 핵계획을 동결시키고 미싸일발사중지 등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것으로 합의문에 충실하여 왔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미국측의 불성실한 리행으로 조미관계에서 일련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조미대화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미합중국대통령방문도 예정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수준에서 쌍방이 호상존중과 리해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대화를 건설적으로 계속하였다면 랭전의 종식을 선포하고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미관계문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해결되였을것이다.

이 모든것은 1994년부터 본격화된 조미대화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2000년말까지의 적지 않은 기간 수 많은 난관을 타개하면서 쌍무관계와 중요한 국제정치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토대를 원칙적으로 마련 해 놓았다는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후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새 행정부가 당파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한 랭전식대외정책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미국국민의 리익, 미합중국의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시종일관한 대외정책을 견지하였다면 ≪대조선정책검토≫니, ≪대화중단≫이니 하며 정세를 혼란시키고 쌍무관계를 악화시키는것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근 반년이라는 시간을 부질없이 탕진한 미행정부가 대내외적인 압력에 못이겨 그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대화재개≫를 표명하고 오늘에 와서는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이 취하고 있는 실제적인 태도와 립장에서는 진정한 대화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대화재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대화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주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화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지난 기간 조미대화에서 힘들게 이룩한 기본토대를 허물지 않는다는 립장을 원칙적으로 표명하는것으로 될것이다.그것은 곧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고치고 최소한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립장수준에 도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떠나 ≪대화재개≫를 론하고 그 누구에게 공이 넘어 갔다는 식의 론조를 되풀이 하는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빈말치레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결코 일방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며 그것은 조미관계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확증된 가장 공정한 쌍무대화의 원칙이다.

우리는 조미대화에서 시종일관 자기의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다.

공은 엄연하게 미국측에 남아 있다.

우리는 미국측의 금후 태도에 대하여 주시할것이다.

개념

공동콤뮤니케

국제관계에서 국가, 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 사이의 회담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쓰이는 외교문건. 공동콤뮤니케에서는 대표단의 방문일정과 회담에 참가한 대표단성원, 그리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에서 도달된 결과를 위주로 밝힌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콤뮤니케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문건으로 간주된다. 공동콤뮤니케는 흔히 보도적인 성격을 많이 띠지만 법률적인 성격도 가진다. 쌍방은 공동콤뮤니케에서 규제된 합의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주체외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천만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새 세기 첫해에 맞게 되는 21세기 태양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을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열렬히 축하하고 있는데요.

김정일영도자님을 21세기를 움직이는 탁월한 영도자, 자주외교의 향도로 칭송하는 세인의 목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세계 외교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일대사변들을 창조한 이북의 눈부신 외교활약은 세계의 정치계의 중심이 이북으로 옮겨지는 **구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세계의 맨 앞장에서 긍지 드높이 새 세기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 본적 없는 이 민족자주 쾌거는 절세 위인 **김정일**영도자님의 당당하고 영활한 주체외교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죠.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체외교가 세계를 움직여 온 격동의 해였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외교는 세계 정치외교계를 주름잡으며 극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진감시켰구요, 그 여운은 21세기 첫해인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져 세계의 이목은 이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일**영도자님의 중국방문은요 두 이웃의 정통적인 친선과 우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방문으로 새 세기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바지한 불멸의 자욱으로 새겨졌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7월에는 방북한 푸친 러시아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역사적인 북러 공동선언에 서명하셨는데요. 구소련과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정상방문인 푸친의 평양행은 북러 사이에 관계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이라 할 겠죠. 세계 여러 나라 방송사들과 보도계가 일치하게 표현한 것처럼 러시아대통령의 방북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일극화를 막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이사회 올레그 쉐무 서기장은 푸친의 평양방문은 전세계 많은 주요 정치가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권위가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이 역사적 사변은 **김정일**영도자의 공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지난해 북미관계에서의 진전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체외교의 척도였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10월 조명록국방위원회 1부위원장을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해 대미외교를 펼쳐 세상을 우선은 깜짝 놀래우시었고, 그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확약한 북미공동커뮤니케를 발표케 하셔서 세계를 들었다 놓으셨죠. 미국무장관이 20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반세기여에 걸쳐 적대시 해오던 이북에 미대통령의 친서까지 가지고 간거는 미국외교사는 물론 전세계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일인겁니다.

언론이 이북은 미국을 변화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드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칭송한 바 있지만 이것은 20세기 세계 외교무대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이었어요.

미국 대외관계 협의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마이클 그레인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김정일**영수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방이 북과의 관계정상화에 분기해 나선 건도 전례 없는 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해 1월 이탈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북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외교관계를 제계했고, 12월에는 영국과 정식 수교를 했어요. 그에 앞서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회원국들이 앞다투어 북과의 수교방침을 발표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죠. 영국의 비비씨방송은 비록 회의장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제3차 아시아회의는 이북이 지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세계가 지난해 이어 올해 이르러서 세기와 세기를 이어 북과의 정식수교에 줄지어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세계무대에서 이북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권위와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한 교수는요 서방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별로 없는 이북과의 수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것은 세계 정치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북의 막강한 위상에 대한 반증이라며 통일된 한반도의 대외노선은 남이 아니라 북



을 따라야 한다고 자기 심정을 표시했죠.

예로부터 외교는 국력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력이 강하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찾아가도 냉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기 마련이죠. 20세기 초 우리민중이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찾고저 독립 청원서를 들고 동서방을 발이 닳도록 다녔건만 동정은커녕 무시와 멸시를 당한 것도 국력이 약한 탓이었어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탁월한 성군정치로 이북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시고 북의 국력을 강철 같이 다지셔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요새로 만드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열강의 끈질길 반북고립압살책동도 선군정치로 막아 내셨고, 선군영도로 이북 민중을 분기시키셔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에로 이끌고 계십니다.

미국이 반세기에 걸쳐 적대시 해오던 북에 머리를 숙이고 찾아든 것은 결국 압살정치의 총파산을 의미하는 함과 동시에 북의 강위력한 힘에 대한 입증이기도 한거죠.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이북이 세계 정치외교의 최정상에서 빛을 뿌리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탁월한 주체외교로 민족 앞에 쌓으신 업적은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새 세기를 이끄실 21세기 태양으로 열렬히 경모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정치외교로 이북을 단연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에 올려 세우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인상을 세계를 매혹시켰고, 그분을 21세기 영도자로 높이 칭송케 했습니다. 방북 후 푸친 러시아대통령은 **김정일**영도자는 현 시대 위인이시다고 높이 칭송했구요, 올부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그분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 감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통신과 방송, 신문들이 그분의 영상으로 지면과 전파를 채우고 지구촌 곳곳에서 **김정일**영도자님의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나왔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서방에 가리워져 있던 신비의 지도자에서 세계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해 세계의 조명을 받으셔 공인된 21세기의 영도자로 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셨습니다.

한 외신은요 세계를 향한 **김정일**영도자님이 미소는 이북을 단연 인기국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분의 인상에 대해 대설특필을 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외교로 이북을 세계 자주화 흐름을 힘차게 견인해 가는 21세기 주도국으로 만드셨어요. 절세 위인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영도로 21세기 세계 자주화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고, 인류는 크나큰 낙관을 갖고 새 세기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진보적 인류는요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러러 자주시대 거장,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영도자,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세계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따르는 21세기 태양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자주시대는 더욱 빛나고 21세기는 위대한 장군의 세기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각계 우리 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긍지는 만방에 빛나고 21세기 통일의 강국의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온다는 걸 폐부에 새기고 그분께서 가르키시는 새 세기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장군

러시아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즈노브르의 서사시

김정일!
그분은 출렁이는 바다 위에 솟은 태양
그분은 거룩한 위업으로 자랑차고 빛나는 예지로 강하신 분
화강석보다 강철보다 억세이신 분, 젊음에 넘치신 **김정일**원수
그분은 걸출한 영장중의 영장
내 소리 높이 노래하련다
김정일장군의 위대한 역사를

김정일!
그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계승자
그분은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서신 분
세계의 머리 위에 더 높이 치켜드셨다. 불패의 주체사상의 횃불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 영도를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의리 앞에
수정주의자들과 배신자들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쥐구멍을 찾는다
행복한 조선민중이여
그토록 **김정일**장군을 따르며 세계가 그처럼 감격해 마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니랴
김정일동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선, 주체사상의 함선, 조선식 사회주의의 함선에 방향타를 잡고 계신다.
나는 확신하노라!
백전백승의 **김정일**원수님의 손길 아래 세계에서 첫 공산주의는 바로 조선 땅에 먼저 건설될 것이라고

지구여, 자랑하라!
위대한 영장, 위대한 영수 **김정일**원수를!
그분은 조국의 충직한 아들, 위대하고도 자유로운 넋의 열렬한 체현자, 이 나라의 가장 정직한 국민
조선이여 자랑하라! 그리고 아끼라!
슬기로운 예언과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강철의 영장, 장군중의 장군이신
조선의 **김정일**동지를

그분께서 지니신 위인의 기질
그것은 지도를 들여다 보시는 아버님의 무릎에서 키우신 것.
그분께서 어린시절 제일 선참으로 읽히신 글도, 조선지도와 붉은 화살표들로 가득찬 작전도 위에 새겨진 글이었다.
전후시기 그분을 애모한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 아니었거늘



그것은 아버님의 *** 포연에 그슬린 아버님의 거칠어진 손

나는 보노라
나의 조선이여, 아메리카는 결코 그대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된 핵문제를 둘러싼 회담에서도 **김정일**장군께선 미국의 장단에 춤추는 국제원자력 기구를 명철한 예지로 보기 좋게 타승하셨다.
김정일장군께서 계시기에 양키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더라.
낙심하지 마시라!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여.
더욱더 용감하라!
이제 오래지 않아 **김정일**장군께서 부르주아지들을 저 대양 깊이 수장해 버릴 것이거니

김정일!
당신은 두려움을 모르시는 사회주의의 수령
제국주의 개들의 **속에서도 홀로 남으셨을 때
당신께선 나아가시었다. 공격전에로
전세계 근로자들의 정의의 위업을 위해 당신께서는 영장의 거대한 전개력을 가지시고 야수화되고 탐욕스러우며 슬픔과 억압만을 가져다 주는 자본주의를 비호하는 쓰레기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었더라

김정일!
당신께선 민중들이 나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변절자들과 배신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논문들과 저작들엔 력력히 맥박친다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가장 훌륭한 진리가

김정일!
당신은 철의 의지를 지니신 영장
행복한 공화국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수령
당신은 이론가, 실천가, 위대한 수호자
당신은 세계적인 위인
백두산의 빛발
당신은 인덕의 화신
당신은 조선만이 아닌 모든 나라 근로하는 사람들의 기쁨



당신은 가장 현명하신 분, 가장 복되이신 분
김정일동지는 어머니와 같이 자애로우신 분
그분께서는 잠결에서 조차 민중의 숨소리를 가려 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배려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만약 당신이 묻는다면, 잠도 휴식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나는 공산주의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답하리라
그분은 세계사회주의의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이시다! 라고

김정일!
그분은 인간의 인정미의 최고의 체현자
그분은 민중의 자유와 평등, 권리의 상징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선량한 민중의 어버이시어라

세계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자
그분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전해가자
그분은 21세기의 영도자, 주체사상의 빛나는 태양이시어라
사람들이여 기억하시라!
우주는 태양으로 빛나고
사회주의의 길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거니
그것은 자유로운 조선의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어라
비겁분자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하리
이제 곧 역사는 네놈들을 심판하고 징벌하리라

위대하신 **김정일**영장의 사상과 위업이 승리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소리 높이 외치고 싶노라
위대하시고 백전백승하시는
김정일장군! 만세!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5호)

부시정부는 여전히 대북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미합의문들이 휴지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조미관계는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

부시정부가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시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부시정부는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부활시키며 대결과 군비경쟁의 신냉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산군복합체의 배후조종과 세계패권야욕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 확증하다시피 민중의 희생 위에 추진되는 반동적인 정책의 후과는 공황과 파국일 수밖에 없다. 자주성의 시대에 역행하는 패권정책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다. 이미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미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조미합의문대로 2003년까지 조선에 경수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선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화적 핵동력개발을 중단한 결과 수백억달러의 에너지손실, 경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경수로건설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합의문이 파기되면 그 세계적 범위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쟁과 파멸이냐 아니면 협력과 보상이냐 하는 선임정권의 딜레마에 또다시 봉착하고 있다. 조미전쟁의 파멸적 결과는 미국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유일한 출로는 미국이 조선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접수하며 해당한 경제손실을 보상하는 길뿐이다. 미국은 조미합의문에 밝혀진 대로 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조미외교를 수립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를 규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늦출수록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현재 부시정부는 ≪대북정책조정≫을 위한 시간을 달라며 조선에 애원하는 한편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는 오그랑수를 쓰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민족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역사에서 모처럼 마련된 통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따위의 반통일책동은 산산히 격파분쇄될 것이다.

부시정부는 파국과 고립을 재촉하는 신냉전전략, 미사일방어체계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조미합의문을 성근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통일분자들을 충동질하는 온갖 불순한 책동들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부시정부는 현명히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행하라

-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12호)

10월 12일은 북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 지 한돌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며 이를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북미공동코뮈니케는 90년대 북미간의 총포성 없는 결전의 총화이다. 이북은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며 정치협상을 성사시켰다.

북미공동코뮈니케에는 북미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담겨 있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이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는 불가피하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 겨레와 인류는 북미공동코뮈니케를 한결같이 환영하였다.

문제는 부시정권이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은 모험적인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의 명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북미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며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 북미관계와 6.15공동선언실현이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북미공동코뮈니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2003년 경수로지원협정에 대한 파렴치한 약속위반이다.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깡패국가나 하는 짓이다.

이북은 참고 있다. 참고 또 참고 있으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미국에 의하여 북미공동코뮈니케가 휴지장으로 변한다면 이북은 구태여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북은 자주적인 핵동력개발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인공위성도 연속 발사할 것이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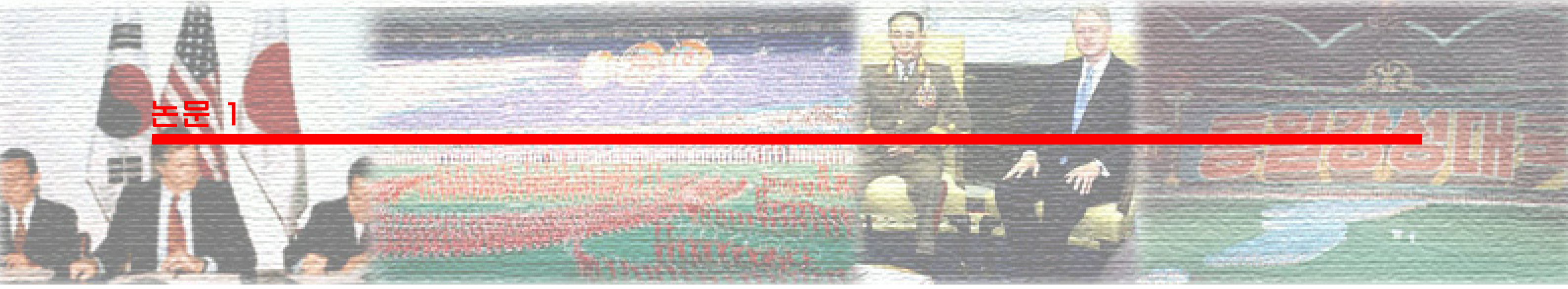
우리 민중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6.15공동선언파탄책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 미국이 그토록 반미항전을 소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미국은 머지 않아 전민항쟁의 무쇠주먹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항공기테러에도 기겁하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을 어떻게 당해내려 하는가. 미국은 공연한 객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력도 명분도 없는 미국이 북미전쟁을 일으킨다면 결과는 파멸뿐이다.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임정권의 뼈아픈 교훈을 명심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0월 12일
서울





제네바핵합의의 ≪2003년≫에 숨겨진 의미

김명철

김정일은 한의학적인 통일전략실현에로 미국을 유도해 넣고 있다.

그것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발표된 북미핵합의문이다.

미국정부나 남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합의문을 단순히 2003년까지 경수로 2개를 북한에 건설해서 넘겨주고 그 사이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여 경수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분석은 제네바핵합의에 숨겨진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이다.

이 제네바핵합의문에는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고 북한에 넘겨주며 북미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 어림도 없다.

하지만 잘 보면 면밀히 타산되어있는 기묘한 시나리오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김정일**의 2차원 전략인 것이다.

즉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03년에는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한국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기본 장애요인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한의 자동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 의미를 알고 제네바핵합의서에 서명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혹시 알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제네바핵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내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확언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서거하였을 때 **김정일**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사변이었다.

또한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을 때에는 국무성에서 축하의사를 발표하였으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증거로 될 수 있다.

미국이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부터였다.

[첫째 이유] 경수로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린다.

미국으로서는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보통 10년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1994년으로부터 계산하면 2003년까지 걸리게 되며 이 숫자는 거기에 타당한 것이다.

미국의 감독 하에 남한이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수로 건설공사가 늦어질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타산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으로 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될수록 공사를 연장하려고 하였다.

[둘째 이유] 평양정권이 10년 이내에 붕괴된다는 판단

하여튼 시끄러운 북한을 얼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그에 타당한 숫자를 넣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지만 10년정도 있으면 그 이전에 북한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미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네바 교섭단계에서 미국정부안에서는 북한붕괴설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록 경수로건설공사를 늦어지게 하면 거기에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작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상식으로서는 북한과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숫자를 넣은 것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오산으로 되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오산이었다.

혹시 어쩌면 일부 미국고위층에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남한을 포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200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커다란 전략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 합의서에 구속력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기간이 명확한 날짜로 제시되지 않으면 제네바핵합의서는 애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간이 정확히 제기되지 않으면 미국이 합의서 이행을 질질 끌게 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 합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김정일은 미국이 ≪계약만능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일을 합의서에 박아 넣지 않으면 그 계약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도 ≪일시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지원군은 이미 전에 철수하였지만 미군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이 경수로건설계획을 합의서 대로 실행하는 것은 한국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협정 또는 북미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성하여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벌써 3년 이상이나 지나고 나머지 7년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김정일**이 예측한 그대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재교섭

미국은 2003년까지의 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제네바핵합의서를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5-6년을 연장해서 경수로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 측의 이러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핵개발계획의 재가동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것을 핵합의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제제재 및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

북한은 경제제재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선전포고로 보겠다고 엄중경고한다.

2003년이라는 약속에 위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정당한 대의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해당한 손해배상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것은 제일 돈이 들지 않는 방법 즉 북한에 대한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의 실행과 평화조약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은 처음에는 거부하는 척 하다가 미국의 성의라고 하면서 미국의 양보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과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쌍방의 수도에 대사관을 수립한다.

또한 북미평화협정도 조인되고 한국전쟁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

[둘째 선택] 제네바핵합의의 포기

미국은 제네바핵합의의 일방적인 포기를 선언한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을 급격히 증강한다.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국제적인 약속의 엄중한 위반으로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시체제를 발령한다.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전면재개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의 탈퇴유보라고 하는 특수상태를 포기해버리고 완전탈퇴를 선언한다.

국제적 약속을 포기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죄는 미국 측에 있다.

북한은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변화된다.

북한의 영공, 영해를 침범한 미군기의 격추 또는 미군함선의 격침사건이 일어나며 주한미군증강이 10만 여명에 달하게 되며 전쟁발발의 불꽃이 튕겨나게 된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배층이 이성을 잃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는 책상서랍안에서 고요히 잠들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첫째 안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정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국내의 일부 매파나 남한옹호파의 반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묵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김정일**이 2003년에 추구하고 있는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김정일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한국문제해결의 기본장애 소멸

이것은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개입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한국문제의 기본장애로서 그 존재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적대국≫도 ≪위협≫도 ≪불량배국가≫로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전쟁상태는 완전히 끝난다.

한국문제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던 완고한 껍질이 벗겨지게 된다.

한민족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단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즉 한국문제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때 북한은 주한미군의 강제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없어지게 되면 미군철수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의 문제로 된다.

또한 북미평화조약 또는 우호조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은 긍정적인 중립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5-10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북미우호조약이 맺어지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동맹국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

[전략목표 2]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의 최종입증

미국에 의한 북한의 외교승인, 한국문제의 외적장애가 소멸되는 것은 북한의 주체성과 민족적 정통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여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김정일이 대미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고 완전히 대등한 외교관계를 미국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조작된 이후 미국의 보호국으로 되어왔고 ≪2부류 동맹국≫으로 취급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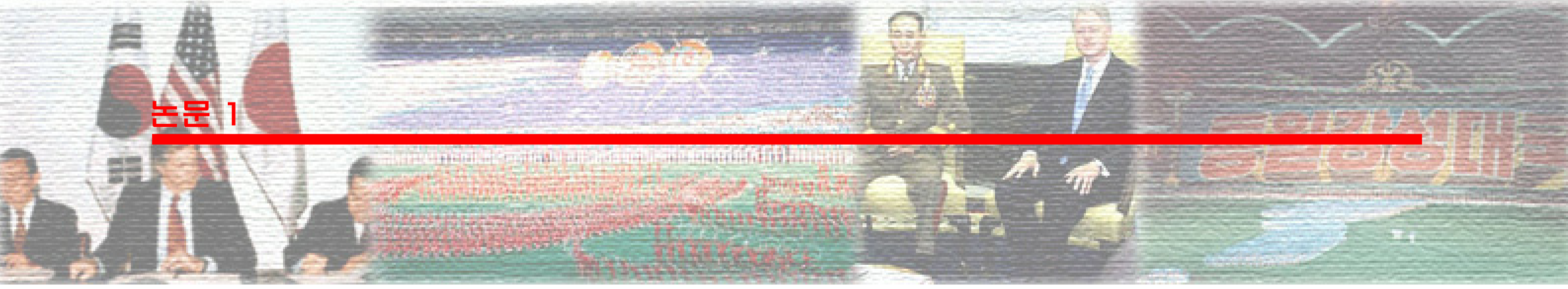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남한 국민과 그 지배층은 미국에 대하여 굴욕감과 열등감을 맛보아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여왔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한≫이라고 생각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국민에게 한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재인식시켜주었던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국의 지위에서 안심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남한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문제, 한반도의 앞으로의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남한국민은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찾아보게 되고 **김정일**의 민족적 영웅,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한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을 **김정일**에게 의탁할 것을 희망하게 된다.

김정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동경심은 더욱 높아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될 것이며 조선총독부의 유물인 미국의 ≪개≫를 청산해버리게 된다.

[전략목표 3] **≪국가보안법≫과 남한의 자연소멸**

상전인 미국≪사자≫와 북한 ≪이리≫가 적대관계를 그만두고 우호관계를 맺기 때문에 남한 ≪개≫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남한의 존재이유, 자기 증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을 적으로 대하는 생각이 건국이래 50년 이상 남한의 존재이념이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기본전제로 되었다.

기본전제가 소멸되면 ≪국가보안법≫도 소멸된다.

그 강제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도 해체되게 된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남한도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폴랜드나 동부독일, 체스코, 헝가리 등의 동구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부정되었을 때 사회주의정권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반공,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남한에서도 일어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했다고 하여 체포투옥 당하고 고문을 받았으며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문도중에 살해된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과거의 역사와 결별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재임 중에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2003년에 취임할 ≪정권≫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남한에 거국일치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북과의 연방제통일교섭을 진행하고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권≫의 중추에 올라앉는 것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들로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김정일**의 동정자,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로 될 것이다.

김정일이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 제도를 남한에 강요하는 제도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남한의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남북의 각 정부가 지방정부로 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제인 것이다.

연방제통일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남북 국민이 제도통일을 하는가 혹은 그대로 두 제도 공존형태를 계속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남한에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도 아니다.

연방제통일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될 것이다.

① 2제도, 2정부, 1중앙 정부의 연방

② 남한의 대외조약상 맺어진 의무 등은 그대로 이행된다.

③ **주한미군의 일정기간 주둔은 가능**

④ **서울이나 부산에 붉은 기는 세우지 않는다**.

⑤ **남한에 파국적인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남한에서 일체 보복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⑦ **남한의 자본가는 보호된다**.

⑧ **남한의 해외자본도 보호된다**.

김정일이 통일정부의 최고지도자, 최고대표자로 추대되시고 통일국가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명명하신다.

김정일은 통일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남북한에 특사를 공포하고 일본식민지지배나 미국지배의 협력자, 지난날 역대 남한정부 관계자들도 재생의 기회를 주며 7천만 국민의 화해와 단결을 이룰 것이다.

김정일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따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한국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그것을 전후하여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하게 된다.

일본도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평화적, 우호적인 인국관계로 될 것이다.

북미정상화와 북일 정상화에 의하여, 북한의 연방제통일에 의하여 한민족은 ≪한≫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된다.

통일한국은 5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문화, 체육 면에서도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나 민족적 차별문제도 모두 원만하게 해결된다.

재일 한국인들의 ≪한≫도 풀리고 당당한 민족으로서 자랑을 떨치게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 24일간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 사실상완성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7월26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9일간 풍경을 감상한 후 8월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러시아의 고도 쌍트 페테르브르크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8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귀로에 오른 **김정일**은 8월18일 평양에 귀국했다.

24일간의 2만킬로 기차여행동안 **김정일**은 조선민요와 러시아민요도 불렀지만 항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김정일의 방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중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보도와 외신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2003년 최종 북미결전을 앞두고 북러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관계까지 재구축함으로써 **김정일**이 대미포위망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이번의 방러는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에 의해 계획, 연출된 고전적인 외교 드라마였다. 1개월 가까이 걸린 이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감독, 연출, 주연은 **김정일**이고 조연은 푸틴이었다. 단역은 러시아군과 치안관계자이고 무대는 광대한 시베리아, 러시아다.

이번 방러는 러시아 국민의 80%, 즉 다섯 명 중 네 명이 구소련 연방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월16일자 보도)에 이루어져 매우 시기적절한 여행이었다. 록펠러 재단에 의하면, 러시아군수뇌와 러시아정부는 과거 수년간 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국언론의 취재사진을 보면 러시아각지에서 북한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띈다.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번 방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당혹해서, 필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흠

을 들춰내려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트집을 잡아도 **김정일**의 방러가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아무리 국가원수라고 해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에게 파격적인 영접를 했다. 그것은 러시아측이 북한최고지도자를 부시나 클린턴, 유럽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통상적으로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길어야 수일,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고 대부분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쪽에서는 경호에 대한 부담이 적다. 항공관제와 수도, 일부의 방문지만 경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김정일이 시베리아철도로 왕복 2만킬로를 24일간에 걸쳐서, 북한측이 지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면, 러시아 쪽의 경비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일**의 러시아방문 일정동안 기차사용을 받아들여, 막대한 수의 경비병과 저격병을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배치하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중한 경계체제를 3주 이상의 긴 방문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측이 **김정일**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은 구소비에트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접을 나간 사람은 소비에트시대의 국방장관 야조프 원수였다. 야조프는 소비에트연방유지를 기도하다 진압당했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러시아는 이 야조프를 전면에 세웠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고 러시아가 **김정일**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극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연방과 공산당해체 후, 모스크바의 레닌묘를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방문에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게다가 **김정일**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크렘린궁전이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지나쳤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푸틴이 전례를 깨트려가며 전대미문의 예의로 **김정일**을 맞이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이유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다.

첫째,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더 강력한 대미견제카드는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도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카드는 못되고, 미국을 특히 부시정권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회담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하물며 일본이나 한국과 경제상의 이유로 관계를 강화해도 러시아의 흥망이 걸려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위망구상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푸틴이 7월에 이탈리아에서 부시와 만났지만 화제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특히 **김정일**을 구소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로 영접할수록 미국은 러시아에 주의를 돌릴 것이며 **김정일**이 머문 3주간 신경을 곤두세워 러시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대미견제는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즉 아메리카콤플렉스가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다시 말하면 북한콤플렉스가 있다. 미국에게 **김정일**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위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재부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일**이 탄 시베리아철도는 달리는 광고탑이 될 것이 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한반도를 잇는 남북의 철도와 연결하는 일은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뒤떨어진 시베리아개발, 특히 지하자원, 석유, 가스, 삼림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정일일행의 24일간에 걸친 철도여행은 그야말로 달리

는 광고탑이고, 이것만큼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는 없다. 러시아측이 특별한 광고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베리아철도가, 시베리아가 전 세계에 3주일 이상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이상의 선전은 없는 것이다. 푸틴이 시베리아철도를 사용한다해도 이만한 화제는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김정일**이 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기관은 **김정일**의 방러에 맞춰서 시베리아철도특집을 연재했다.

북러공동선언은 북러관계가 정식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군사동맹 이상으로 밀접한,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대미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사동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의한 정식 군사동맹≫이고, 또 하나는 조약은 맺지 않지만 군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한 ≪사실상 군사동맹≫이 다.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라도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은 현실의 정세를 반영해 대단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북러공동선언 어디에도 군사동맹이나 공동방위라는 말은 없다. 단지 국제연합의 역할강화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정치적 교섭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축된 군사동맹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나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대우는 사실상 북한이 밀접한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북러 공동선언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다음의 4가지를 합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로 된다. 특히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요격미사일금지(ABM)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이고, 양국이 국제안전보장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의

(2)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평화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게는 위협이 안됨

(3)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

(4) 주한미군문제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 최우선사항

이것은 북러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 특히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을 탈퇴해서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일체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특히 부시정권에 의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설, 깡패국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위협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 해 7월19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양국 지도자에 의한 북러 공동선언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같지만,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첨가하고 있다. 지난해 선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선언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 더욱 더 전진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김정일**일행은 장거리로케트제조공장, 최신예전투기제조공장, 전차공장등을 시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 새롭게 담겨진 것이 주한미군문제이다. 러시아 주변에는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미군철수는 제기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미군철수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러지도자의 강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반도는 미군철수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이래, 1961년까지 러시아(구소련)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러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 수립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동맹은 러시아측 특히 푸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한 것보다 더 유효하다.

이번 방러는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명확해 진다.

첫째, 푸틴의 간곡한 방러요청과 군사동맹관계 수립요청. 러시아는 **김정일**의 방러를 거국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로 환영했다. 소국이나 약소국이 대국인 러시아에게 군사적 의존, 보호,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미대결에 있어서 러시아측이 북한에게 밀접한 공동보조와 군사동맹관계수립을 요청했다.

이것은 북러국교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수립, 더 나아가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북한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방위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대결에 있어서 북한, 특히 **김정일**과의 군사동맹수립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시정권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타격. ≪북한은 깡패국가≫라는 설, ≪북한의 미사일위협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가결하다는 북러공동선언은 미국측, 특히 부시정권에게는 틀림없는 정치적 · 외교 · 군사적 타격이 되었다.

미국에게 ≪북한 깡패국가설≫, ≪북한 미사일위협론≫을 부정당하는 것과 주한미군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것은 엠디계획과 대북강경론이 근원에 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두 개의 주장은 부시가 러시아에 바라는 요격미사일금지조약 파기의 근거로써, 그것을 러시아가 완전히 일축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안정돼 있는 정치현실과시. 통상적으로 국가수뇌가 자국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주일이고 그 이상이 되면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치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수뇌진이 일주일이상이나 해외에 나가있으면 국정이 혼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측으로부터 침략이나 파괴공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김정일**의 방러를 지켜본 미국정보기관은 **김정일**이 없는 동안에 특별파괴공작원을 북한에 침입시켜서 체제

전복을 꾀할 가능성을 온갖 채널을 통해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시사저널 8월 16일자보도)

김정일은 시베리아풍경을 즐기면서 가끔씩 하차해서는 철도여행을 천천히 만끽했다. 동행한 러시아고관에 의하면 **김정일**은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시베리아와 러시아사정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수뇌들은 나라를 3주일 이상이나 비울 여유도 없고, 최고의 사치인 철도여행을 즐기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철도여행을 하면서도 **김정일**은 기차안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계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기차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서 하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 접속돼 있었다. **김정일**의 해외시찰여행은 끊임없이 발이 땅에 닿아 있다.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는 국외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탓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견디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김정일**. 이번 방러는 **김정일**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 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부시, 클린턴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를 러시아로 초대한 적은 있지만 이만큼의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이번 방러는 푸틴이 대미군사외교전략에 있어서 **김정일**을 단순히 대등한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스승으로서 삼고의 예(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고사)를 다해서 맞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김정일** 방러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프리코흐스키 극동관내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는 14일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가지도자인 표트르(황제18세기 러시아 근대화 지도자)에 비할만한 정치가로, 대단히 뛰어난 진보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번 방러는 21세기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구축하고 미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김정일**밖에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슈퍼 **김일성**인 것이다.

김정일의 방러에 의한 북러군사동맹 재구축은 북미결전 최종 라운드인 2003년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최초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정비할 예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단독으로 2003년 조미최종전에서 무혈승리를 거두고 만에 하나 전면전쟁, 핵전쟁이 되어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사 우선정책은 절대적인 효과를 내어 페리보고서를 끌어냈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동맹국은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떠드는 미정부의 북한고립화 정책과 결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방국가는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작년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정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3일~15일, 마침내 평양에서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고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나와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 합의됐다. **김정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수뇌와 북중군사동맹이라는 피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했다.

올 9월에는 장쩌민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용군 조선전쟁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 북중 동맹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네 차례의 북미군사대결이 있었다. 1968년 스파이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EC-121 정탐기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1993년~94년 핵 대결. 그 때마다 어느 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독으로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임해 전면전쟁,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폈다. 결국 그 때마다 미국이 물러났고 북한은 무혈승리를 달성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단독대결이 북한경제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국제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북한은 대미대결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단독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 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포위망도 완성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부시정권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미 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극적으로 유리해진 상황 속에 **김정일**은 제네바 핵합의 최종기한인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약속한 경수로 2기를 북한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수로공사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해도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2003년이 되면 부시정권은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으로부터 격렬히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동결돼 있던 핵 발전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은 두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유인우주비행실험까지 할 가능성마저 있다. 2003년 제네바합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부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실험을 묵인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해지고 일본 국내에는 반미기운이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공공연히 혹은 비밀로 핵무장을 결단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핵무장을 결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이 야기되고, 반면 핵무기로 세계를 재패했던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굴러떨어져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군사공격을 한다.

이는 북한과 전면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네바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대의명분이 없다. 미국은 대의명분이 없

어도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나라인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나 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전멸뿐 아니라, 미군의 대북한군사행동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보복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본토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은 단독으로 미국과 핵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보다 북한이 핵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본토 도심은 핵공격에 대한 방위체제가 일체 없다. 초보적인 엠디체제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그것도 2004년 이후가 된다.

또 미국의 대북한군사행동을 유럽,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선택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위에 말한 두 가지의 선택으로는 부시의 재선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시진영은 이미 재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걸프전쟁으로 부친도 재선하지 못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반침하 혹은 본토가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세 번째,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나라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상대, 특히 강렬한 반격, 보복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선택한다.

이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 것은 북미적대관계의 해소, 즉 북미평화협상조인, 주한미군철수, 북미국교수립, 제재조치의 전면해소, 테러국가리스트에서 북한해제,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요구된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승인, 비승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잔류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부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재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부시에게는 이것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만일 부시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김정일**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김정일**은 항일무장전쟁의 전화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 후 미국과의 군사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이번 방문으로 북러양국은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합의했으나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특히 경제재생의 순풍이 될 것이다. 북러공동선언에서 러시아는 양국간에 건설한 산업시설, 특히 전력시설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원래 북한의 산업시설은 러시아기술에 의한 것이 많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공급시스템의 중핵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이다. 이 두 곳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위기 이후 러시아는 협력을 중단하고 부품 등의 공급을 거부했다.

유럽 등으로부터 상품조달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맞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 매우 비쌌다. 하지만 북러합의 이후 커다란 자본도입 없이도 러시아로부터 일부부품 등의 공급이 재개된다면 북한전력사정은 크게 호전된다. 전력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북한 경제는 재생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그 밖의 생산시설이나 공장도 가동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없어도 이미 북한 경제는 부활기조에 있고 몇 년 안에 극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순풍이 불어 북한의 경제재건은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기 등은 대부분이 러시아제인 데다가 부품부족, 연료부족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북러회담은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군사분야 협력이 별것 아니지만,대미 전략상 이것만큼 유효한 대책은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자신이 병력이나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 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러시아 자신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보다 수백배의 군사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후 수년 사이에 북한경제는 완전히 재건되고 부활해, 1인당 국민소득도 1991년의 25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간다. 10년 내에는 8천달러 이상으로도 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만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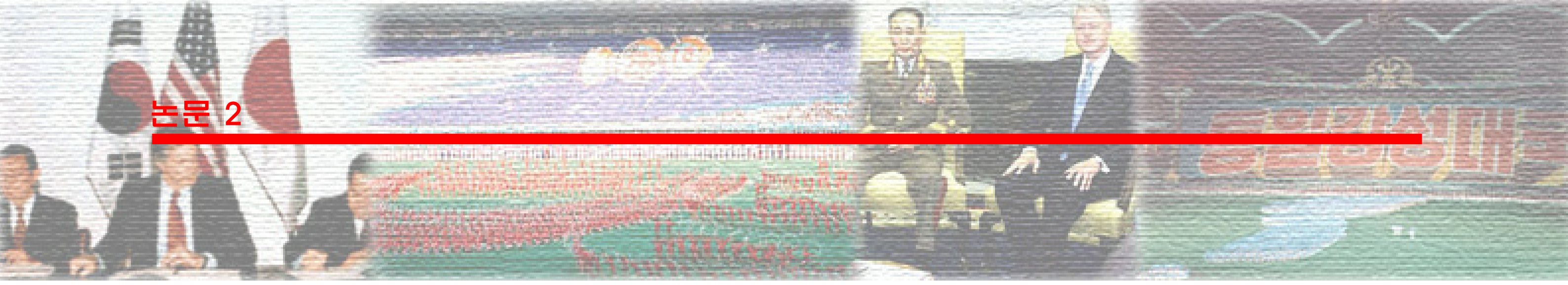
△유럽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순풍이 된다. △2003년까지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된다 △여분의 국방비는 전부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다 △북미적대관계 해소에 의해 해외로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석유개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본격화되어 북한은 산유국이 된다 △이후 5년 이내에 남북이 연방제를 달성한다.

만일 북한이 산유국으로 떠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3만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도 자신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 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

이번 방러 24일간은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에 대비한 대미포위망완성을 의미한다. 이후 2년 4개월 이내에 북미교섭은 평화적으로 일괄타결될 것이다. 미국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남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도에 의해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통일의 최대의 장애였던 미군, 미국이라는 요인이 무력화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된다. 미국이 무력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한은 쉽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것이다.



조 · 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조미관계의 경색국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발췌) / 한호석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공약인 신포 경수로 건설공사를 완공해야 할 시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2003년까지 지어주기로 공약한 경수로는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나 완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다. 부시정권은 공약 불이행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클린턴정권으로부터 고스란히 넘겨받고 말았다.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부시정권이 지금에 와서 아예 제네바 기본합의 자체를 파기해 버리는 극단적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들에게 떠넘겨진 공약 불이행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남아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수로 건설사업을 공약시한에 맞춰 추진하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조 · 미 고위급 정치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길밖에 없다. 부시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대한 수정방안은 경수로 건설을 재래식 발전소 건설로 대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정권이 그러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미국이 책임지고 지어주기로 공약한 신포의 경수로 2기는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위험한 원자로≫다. 미국은 북(조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체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에 건설하고 있었던 흑연감속로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위험한 원자로≫라는 억지논리를 들이대면서 흑연감속로가 아니라 ≪안전한 원자로≫인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하였지만, 경수로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능에서는 흑연감속로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신포의 경수로 2기는 지난 시기 북(조선)이 건설하고 있었던 흑연감속로보다 발전용량이 훨씬 더 커서 약 5.5배나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신포의 경수로 2기는 완공될 경우 핵폭탄을 해마다 자그마치 65 개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함유한 사용후 핵연료를 축적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원자로다. 지난 시기 러시아가 이란에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던 미국은 북(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고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렇다면 클린턴정권은 왜 흑연감속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수로를 책임지고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보짓을 했던 것일까? 당시 클린턴정권은 앞으로 신포에 경수로가 세워질 때쯤이면 사회주의 조선은 세계 지도 위에서 사라졌을 것이라는 이른바 ≪북(조선) 붕괴설≫을 어리석게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로 건설하고 있었던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했던 북(조선)의 보상요구가 미국에게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가져올 것인지를 별로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의 정세를 오판한 클린턴정권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다. 부시정권은 선행 정권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야 하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에 몰려 서게 되었다.

둘째,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에서 부시정권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미국의 까다로운 원자력법이다. 미국산 원자력 발전설비를 공급받은 나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 정부가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시정권은 한(조선)반도에너지기구(KEDO)를 통해 미국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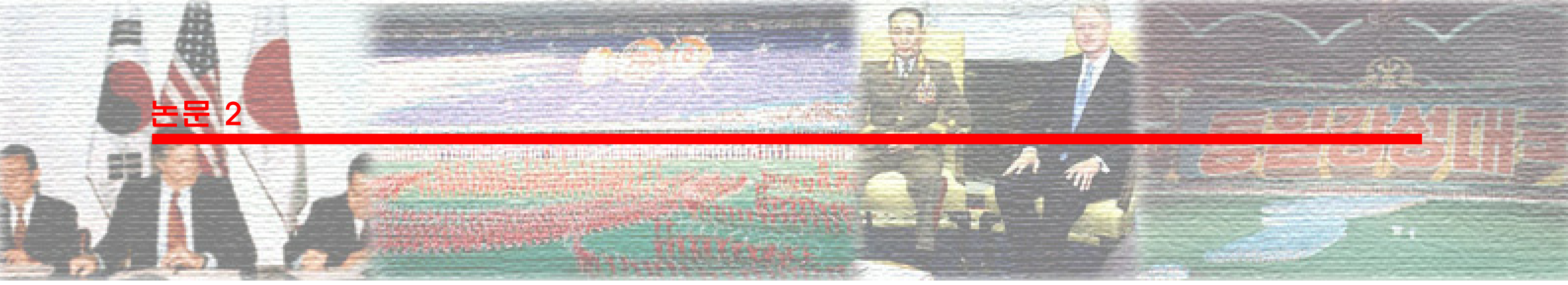
자력 발전설비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미국의 원자력법은 미국이 수출한 원자력 발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보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발전설비 제조회사의 발이 묶여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자사 제품인 3000만 달러짜리 발전소 터빈을 신포 공사현장에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시정권은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로 하여금 그러한 법적 규제를 변경시키거나 해제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려면 부시정권이 연방의회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지금 부시정권은 집권 초기에 으레 나타나는 행정부 안의 정리되지 못한 어수선한 분위기와 연방의회를 대하는 미숙한 태도 때문에 그럴만한 형편에 있지 않다. 부시정권이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일정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한, 당분간 조·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재개되고 진척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만일 북(조선)이 부시정권과 연방의회의 갈등관계를 인정하고 연방의회의 법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조·미 협상에서 합의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이 신포 경수로를 약속시한에 맞춰 건설해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북(조선)의 동력수급체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클린턴정권은 북(조선)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경수로가 완공되기까지 해마다 중유 50만 톤을 제공해야 했다. 그런데 중유값이 국제유가 상승기류를 타면서 1995년에 30만 달러였던 것이 올해에는 100만 달러로 크게 올랐다. 중유값은 계속 오를 것이며, 그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재정지출부담은 자꾸만 커질 것이다.

게다가 2003년 이후에는 경수로 완공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될 북(조선)의 전력난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도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 손실도 미국이 보상해주어야 한다. 클린턴정권은 물러나기 직전 그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져야할 부담을 김대중정권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고 하였다. 이른바 대북 전력공급사업으로 알려진 일련의 계획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대북 전력공급사업은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조선)이 전력 50만 킬로와트를 요구하였고 앞으로 연간 200만 킬로와트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추진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나 사실은 김대중정권이 조·미 관계에서 발생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대리보상사업의 일환이었다. 북(조선)이 남(한국)에게 요구한 전력 200만 킬로와트는 미국이 신포에 지어주기로 약속한 경수로 2기의 발전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지금 부시정권은 김대중정권이 대북 전력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대북 전력공급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북 사이에서 화해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부시정권의 당면요구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부시정권은 선행 정권이 추진해왔던 포용정책과 그것을 실현해가는 페리 프로세스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서두르지 않겠지만 계승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부르킹스 연구원의 대외정책연구 담당 객원연구원 조엘 위트(Joel Wit)가 2001년 3월에 발표한 논문 ≪미국과 북조선(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에서 부시정권의 북(조선) 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을 결론으로 내놓은 것은 그러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2001년 3월 9일자 기사에서 부시정권이 올해 하반기쯤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봉쇄 책동이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 · 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 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 · 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 · 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 · 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 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

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 · 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 · 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 · 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 · 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 · 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 · 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 · 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미 정치협상의 핵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 발사 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 · 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는 선행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해결책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클린턴 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부시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선뜻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조미 관계에 걸려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는 타결점을 찾게 되면 곧 조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2000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2001년 5월 3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백두산 2호≫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유예조치는 미국에게 앞으로 2년 반의 시한부 통첩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미 두 나라가 정치협상 재개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정해진 시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다.

3) 북(조선)은 국가적 조직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정치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국가 내부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조선) 내부의 결집된 힘을 그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에 그 힘의 원천을 ≪수령 · 당 · 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밝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북(조선)의 국가적 조직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기의 역경 속에서, 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미국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매 매고 경제재건에 달라붙었을 때 전인민적 일체감을 보여주었으며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 . .